

☀ 2021학년도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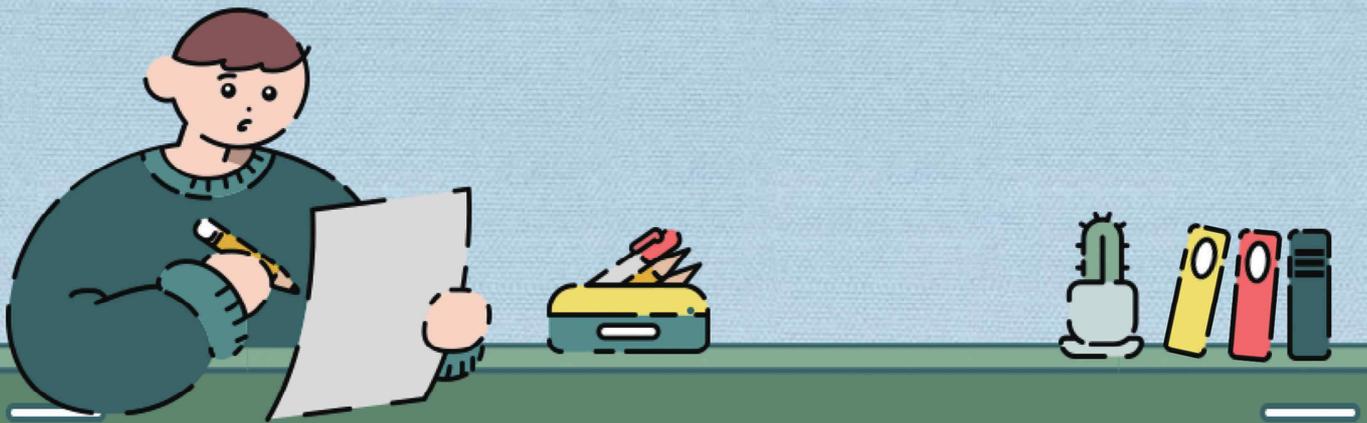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

part 1.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차례

Part I .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새로운 학교, 또 다른 교실. 메타버스의 세계로!_교육학과 19학번 송예진 / 3

우수상

화학과 가까워지는 법-이해, 실생활, 소통_국어교육과 19학번 김수연 / 10

수강만 했을 뿐인데... 7대 역량을 갖춘 포토폴리오를 얻었다?_영어교육과 19학번 신유림 / 14

장려상

어서와 '경제학 원론'은 처음이지?_경제금융학부 21학번 변예진 / 19

교양보다 더 좋은 교양_화학에너지공학전공 21학번 유혜선 / 23

Part II .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복습이 복습을 낳는 복리 학습법_지적재산권전공 18학번 황유정 / 29

우수상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만드는 시각화 공부법_역사콘텐츠전공 20학번 이예은 / 39

메타 인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기_행정학부 20학번 박장한별 / 46

장려상

교육학과 4학년이 알려주는 '진정한' 학습 방법_교육학과 19학번 송예진 / 52

새내기를 위한 암기&스토리텔링 학습법_국어교육과 21학번 황지은 / 57

☀ 2021학년도 2학기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

part 1.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새로운 학교, 또 다른 교실, 메타버스의 세계로!

교육학과 19학번 송 예 진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환경적·공간적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학교’라 하면, 많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는 모습과 교탁 앞에서 계시는 선생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는 학생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학교’는 실시간 화상 수업 속 학생들과 선생님의 얼굴, 편하게 집에서 수업을 듣는 내가 떠오른다. 그 누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보았을까? 단언하건대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실시간 화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현실 속,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는 교육학과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과목이다.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학 과목에 대한 교양 교육과정을 분석·개발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융합수업을 설계·시연하는 수업이다. 2015개정 교양 교육과정 속 교육학 과목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등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차원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중점을 새롭게 수립하고, 신·구 대조표를 만들어 교육학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게 된다. 나아가 새롭게 개발한 교육과정을 발표함으로써 교육학 교양 교육과정의 모든 면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융합수업을 기획한다. 범교과주제를 연계하거나 또 다른 과목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과정안을 설계하고, 이를 zoom 수업으로 시연한다.

내가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첫 번째, 교육과정과 수업을 하나의 흐름에서 조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업시연 속 수업을 설계하면서, 교과서의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을 적용했을 뿐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교육과정은 곧 정답이다.”라는 오류가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그 자체를 수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는 고민조차 못 해왔다. 그러다가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을 듣게 되었고, 수업을 설계할 때는 교육과정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배웠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더 질 높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차원에서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은 교육과정과 수업을 함께 아울러 생각하게 만드는,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새로운 교육의 세계,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지속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에서는 ‘메타버스 학교’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3부류로 나누어져 각자 에듀고, 해가뜨고, 용문고의 학생들이 된다. 각 학교별로 메타버스

교실이 운영되기에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 다른 학생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각각의 메타버스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실을 직접 꾸밀 수도 있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으며, 새로운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도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없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학교와 교실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에서는 이러한 메타버스 학교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화할 수 있다. 메타버스 학교를 통한 교육의 변화에 함께 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강의의 최대 장점이자 새로운 혁신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 실시간 화상 수업에 적합한 새로운 교수법 및 기술을 배우고 수업으로 적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교수법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특히 실시간 화상 수업에 적합한 기술들을 새롭게 알아야 했고, 어떤 기술이 효율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나 역시도 실시간 화상 수업시연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던 만큼,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정민 교수님께서서는 실시간 화상 융합수업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 및 기술을 알려주셨다.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는 ‘padlet’은 물론, 구글 ‘잼보드’를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멘티미터’기술 등이었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와 협동이 제한된다는 기존의 실시간 화상수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러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직접 융합수업에 기술들을 적용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루해질 수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 속, 활동적인 기술과 교수법의 도입은 실제 수업시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였다. 동시에 나 역시도 교육의 변화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을 배울 수 있었다.

이외에도 팀티칭 수업과 융합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한 명의 교사로서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나의 수업을 다각적으로 평가받고 성찰할 수 있다는 점, 새롭게 개발한 교육과정을 전시하는 poster presentation 등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은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혁신을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수강하면서 나는 내가 몰랐던 색다른 도전을 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새로운 경험을 거듭하는 기회를 가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은 하나의 길과 같았다. 끊어지는 것 없이 시작과 끝이 관통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수업이다. 내가 했던 모든 과정들이 끈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되는 것과 같다. 그 과정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분석·개발이고, 두 번째는 융합수업 및 팀티칭 설계·시연이다.

사실 2015개정 교육학 교양 교육과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뿐더러 한 번도 분석 및 새롭게 개발할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교수님께서서는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특히, 학습목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교육학 과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교육학 과목에서는 무엇이, 왜 중요해져야 하는지 등을 사고하는 기회를 주셔서 2015개정 교육학 교양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 분석하고자 한 중단원은 “II-2.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부분이었다. 본 중단원에 대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교과서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정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①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② 본 중단원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③ 본 중단원의 목표 및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①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를 과거-현재-미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탐구하도록 하였다. ② 사고를 역순으로 하게 하여 배운 지식을 실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대조하면서 분석 및 개발을 실시하였다.

(구/현행) 일반화된 지식	(신/개편) 일반화된 지식	유지	삭제 · 폐지	축소 · 약화	확대 · 강화	추가 · 신설
	공교육의 개념과 의미는 무엇인가?					○
근대 공교육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공교육은 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	
공교육 제도의 발달이 오늘날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공교육의 발전이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	
	미래 공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구/현행) 내용	(신/개편) 내용	유지	삭제 · 폐지	축소 · 약화	확대 · 강화	추가 · 신설
[12교육02-03] 근대 공교육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			
	[12교육0202-01] 공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개념과 이념을 이해한다.					○
	[12교육0202-02] 공교육이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12교육0202-03] 공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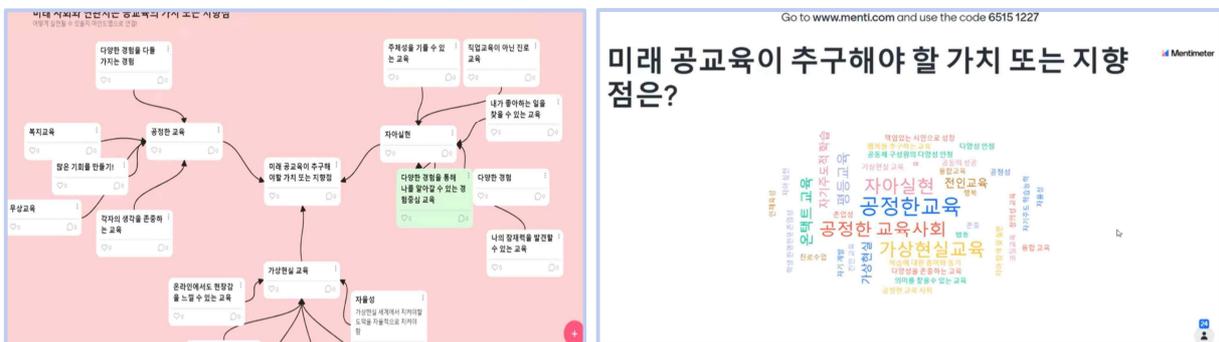
특히,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 공감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구성함으로써 본 중단원의 성격 및 목표 등을 새롭게 개발하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동시에 2015개정 교육과정 속 ‘공교육’을 근대 공교육으로만 한정하여 다루고 있음을 문제로 여기고 ‘공교육’을 과거-현재-미래의 흐름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II-2.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라는 본 중단원명을 “II-2. 공교육의 의미와 방향”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 속 공교육의 미래를 축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인간의 삶과 공교육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미래 공교육을 설계할 것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핵심으로 보았고, 이러한 점을 성취기준 해설로 담아 추상적인 해설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한 만큼 교수·학습의 방향과 평가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작성한 바 있다. 교수·학습의 경우, 학습자의 삶과 관련 지을 것을 명시하여 스스로가 앞으로의 공교육을 만들어 갈 주체적 인물임을 이해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형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여 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달성할 것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여 교육학을 지식적으로만 인지하는 문제점을 유의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본 중단원의 교육과정을 직접 분석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전에는 교육과정을 정답처럼 여겨왔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오류가 많다는 점을 인지했다. 특히,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만큼 교사가 교육과정을 먼저 분석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알고 나니, 교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동시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학에서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교육학 과목의 경우 편향된 시각이나 왜곡된 시선을 알려줄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기에 이를 주의하여 교육과정 및 해당 지식을 바라보아야 함을 배운 것 같다. 교육학과 학생으로서 교육학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학문임을 정의할 수 있었다.

직접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경험이 첫 번째 문이었다면, 이제는 이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 문으로 향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번째 문은 융합수업 및 팀티칭 설계·시연으로,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직접 개발한 중단원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나의 융합수업 및 팀티칭 수업을 설계 및 시연하는 것이다.

수업시연은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내가 개발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많았다. 특히 융합수업도 처음이고, 팀티칭 수업은 더 처음이라 한 번도 하지 못한 색다른 도전임이 틀림없었다. 팀원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지식들을 다양하게 적용 및 실행해 보았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 ‘padlet’, 구글 ‘잼보드’를 활용하는 것, 학생들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멘티미터’기술 등을 수업에 접목시키면서 활동적인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술 자체를 몰랐기에 수업을 하기 전, 이러한 기술을 먼저 습득해야 함을 알았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을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활용할 것인지도 깊이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다. 45분 수업에서 해당 기술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가장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다. 그 결과, ‘padlet’과 ‘멘티미터’ 기술을 메타버스 수업에서 활용할 것을 결심했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 것을 구성했다. 동시에 학생들의 생각이 오늘 수업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한 단계적인 설정을 해서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 실제 메타버스 수업에서 활용했던 ‘padlet’ 마인드맵, ‘멘티미터’ 활동



또한,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공동호스트 소집단 만드는 법 등을 참고하면서 수업에 대한 설계 및 준비를 하였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만 같았던 수업이지만,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다양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교수님께서 교수·학습과정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장을 마련해주시기도 하였다. 교수·학습과정안 초안에 대한 교수님의 세부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으며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전문가가 되어 초안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도 하였다.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터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미래 공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은?”이라는 질문을 ‘멘티미터’ 기술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로 모둠 활동을 진행할 것을 계획한 바가 있다. 이때, ‘학생들의 의견이 세 가지로 모이지 않거나 학생들이 방향을 못 잡으면 어찌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20~30개의 보기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이를 반영한 수업을 시연하였다. 또한, 수업 내용 가운데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한 전문가님(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님)이 해당 단어가 성차별적 언어로 지적되고 있음을 말씀해주셔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교수·학습과정안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내가 설계한 수업에 대하여 이렇게 다양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하였고 놀랍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와 피드백이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이 구성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신기하고 색달랐던 것은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확보한 수업 설계였다. 개발한 교육과정에서 “미래 공교육”을 강조하였던 만큼 이를 한 차시 수업으로 설계 및 시연할 것을 결심하였다. 직접 개발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니 더더욱 수업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할 수 있었다. 개발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에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 지식 정보화 사회 등 공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문화’ 과목과의 융합수업을 택했고, 공교육의 의미를 토대로 미래 공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계할 것을 “민주시민교육”의 범교과주제와 연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하고 있는 “국민참여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국민참여 공교육”을 바탕으로 실제성을 부여한 수업을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 공교육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스스로임을 체화하도록 이끌었다.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한 덕분에 수업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개발한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던 만큼 이를 토대로 활동적인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수업시연에서 후회가 없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메타버스 학교를 전제하고 했던 수업인 만큼 각각의 메타버스 학교 특징을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각각의 메타버스 학교가 많이 꾸며져있고 어느 정도 지역이나 특색도 공고히 자리 잡힌 만큼, 소그룹 활동 모듬이나 내용에 많은 고민을 하였다. 다행히 수업으로 적절히 구현할 수는 있었지만 실시간 화상 수업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소그룹 배정이 갑자기 풀려버린 경우도 있었고, 소그룹 활동 시간에 순회 지도를 하면서 순서가 헛갈려 잘못 들어가기도 하였다. 메타버스 학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만큼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와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것 같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교수님과 동료 평가자분들의 피드백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상세한 피드백과 평가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수업시연에 대하여 자신 없어 하던 나인지라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융합 수업 및 팀티칭 수업의 방향성]

융합 혹은 범교과학습주제 연계 설명	교육학 교과 II-2단원(공교육의 의미와 방향) “미래 공교육의 방향” 학습주제와 사회문화 교과 V단원 “현대의 사회 변동” 내 “소단원 2-1. 저출산 고령화의 과제와 대응 방안”과 “소단원 2-2. 다문화적 변화에 따른 과제와 대응 방안”, “소단원 3-2.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과 대응 방안” 학습주제의 융합 및 범교과 “민주 시민 교육” 학습주제 연계
---------------------------	--

3차시	공교육의 방향과 가치 탐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을 수 있다. 2. 공교육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국민참여 공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3. 미래 공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p>공교육의 발전 과정 속 공교육과 사회의 유기적인 연관성에 주목하여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것임을 설명한다. 이때, 학습자는 민주 시민으로서 공교육의 연속적인 과정 안에 있는 교육적 주체라는 점을 중시하여 공교육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융합 수업 및 연계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인구 구조 변화”라는 미래 사회의 모습 및 변화를 사회문화 교과와 융합하여 학습한다. 이어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 연구원과 함께 <국민참여 공교육>에 참여하여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조별 토의 활동과 “멘티미터” 활동을 통해 미래 공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을 탐구한 이후, “padlet”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 공유 및 타인의 의견에 공감한다.</p>
-----	----------------------	---

동기유발	1분 30초	<p>▶ 공교육을 둘러싼 환경 및 공교육의 변화와 관련한 동기유발 제시</p> <p>- 교육학 교사)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공교육의 변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p> <p>- (ppt로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 두 이미지를 보았을 때, 뭐가 크게 달라진 것일까요? 채팅방에 간단하게 답변해 볼까요?</p>	<p>▶ 공교육을 둘러싼 환경 및 공교육의 변화와 관련한 동기유발</p> <p>- 예상 댓글 ①) 학생 옷이 달라졌어요.</p> <p>- 예상 댓글 ②) 핸드폰이 바뀌었어요.</p> <p>- 예상 댓글 ③) 코로나19를 전후로 학교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요.</p> <p>- 예상 댓글 ④) 잘 모르겠어요.</p>	<p>◆ PPT(6쪽)</p>  <p>◇ 사회의 변화와 공교육의 변화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사용한다.</p> <p>◇교사는 ZOOM 채팅창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한다.</p>
------	-----------	---	--	---

▲ 실제 메타버스 수업에서 활용했던 교수·학습과정안 일부

메타버스 학교를 전제로 수업시연을 한 적은 처음이라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내가 직접 교사가 되어 메타버스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에서 나는 한 명의 교사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용문고 메타버스 학교의 학생이기도 하였다. 메타버스 학교에서 나만의 캐릭터로 교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기억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것이 처음이었기에 더더욱 신기하였는데, 그래서인지 캐릭터를 꾸미는 것도 재미있었고, 학교 교실을 꾸미는 것도 좋았다. 또한, 쉬는 시간에 메타버스 학교에 들어가 친구들과 화상으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설치한 게임도 확인하고, 신기한 경험이 가득했었다. 학생들의 자치로 운영되는 학교가 이렇게 인터넷 공간으로도 구현되다니! 교사를 꿈꾸는 나로서 교육의 변화에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했다. 동시에 나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시연을 보면서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메타버스 학교의 학생으로서 답변도 하고, 활동도 수행하면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난다. 메타버스 학교가 있어서일까 나도 모르게 고등학생이 되어 참여하고 있었고 교육학 과목 그 자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였다.

교육과정부터 수업시연까지 그 모든 것에서 쉬운 것은 없었다. 처음 접해보는 메타버스 학교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융합수업 및 팀티칭 수업까지 도전을 거듭해야 하는 과정 속, 이정민 교수님의 가르침이 큰 해결책이 되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길을 제시해주는 분이셨고, 그렇기에 내가 하나의 과정을 이룩해 이야기를 완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 좋은 수업은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무언가가 남는 수업”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 수업이 그러한 수업이다. 쉽지 않은 과정 속 팀원들과 협동심으로 단결했던 과정인지라 더더욱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학교를 마치기 전에 새롭게 개발한 교육과정을 전시하는 poster presentation 활동을 진행했는데, 메타버스 학교의 한 교실에서 각 팀이 개발한 교육과정을 전시하는 것이었다. 이때 메타버스 학교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각 팀의 교육과정 개발 문서 동영상을 살펴보게 된다. 전시된 교육과정 개발을 보면서 이렇게 메타버스로 다양한 것이 가능함을 실감했다. 메타버스가 또 다른 공간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거듭할 수 있음을 느꼈다. 뿌듯함이 많이 남았던 이유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했던 교수·학습과정안과 수업시연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2021학년도 미래교사 수업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했고, 그 결과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학년이 올라가는 지금,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실시간 화상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 지식 전달에만 치중되어버린 학교 교육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며, 이러한 교육 상황이 전인 교육을 담을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왔었기에, 이 수업이 더더욱 훌륭했다고 보았다. 메타버스 세계 속 새로운 학교와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한 명의 교사로서 혹은 한 명의 고등학생으로서 메타버스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색달랐다. 나아가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나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배운 것 같아 뿌듯했다. 다른 수업과는 달리,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은 학생들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인지라 더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설정해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도전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수업보다도 배움이 큰 수업이기에 이렇게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과정> 수업을 우수한 강의로서 남기고 싶다.

우수상

화학과 가까워지는 법-이해, 실생활, 소통

국어교육과 19학번 김 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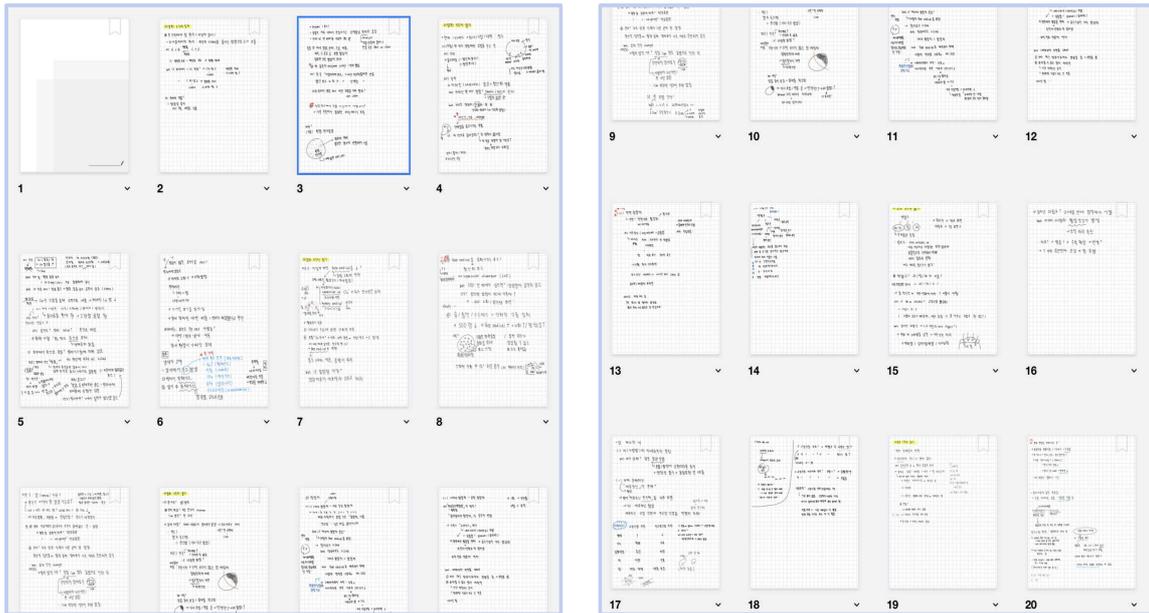
이번 학기 저는 강상욱 교수님의 ‘미래 생활과 화학’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국어교육과 화학, 전공으로만 보자면 이 수업과 저는 거리가 꽤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양에서는 전공과는 다른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것에는 다양한 수업을 듣고자 하는 이유를 넘어선 다른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강상욱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자 희망한 것은 약 3년 전입니다. 2019년, 20살, 상명대학교에 합격하고 난 후 저는 예비대학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만 느껴졌고 그 이유에서인지 긴장감을 가득 안은 채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을 풀어주었던 것은 예비대학의 ‘상상 교양강좌’였던 미래 생활과 화학 수업이었습니다. 이는 상명대학교의 교양 수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화학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목명만 보고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업에 몰입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졸업하기 전에 꼭 강상욱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비록 이때로부터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번 학기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모두 들은 지금도 3년 전의 마음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절대 잊지 못하는 순간을 기록한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미래 생활과 화학 수업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이해’, ‘실생활’, ‘소통’이라는 세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 수업을 ‘이해’, ‘실생활’,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이해’를 추구하는 수업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과학을 배운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화학에 대해선 거의 무지인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미래 생활과 화학 수업의 목표는 인문, 사회, 상경,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기초 과학지식을 함양하는 것과 비화학계열 이공계 학생들에게 다양한 화학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르샤틀리에의 원리, 효소 등과 같이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회사, 기업, 대학에서의 현재 이슈들을 다루며 화학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자세한 예시와 함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PPT를 사용하지 않고 판서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 역시 이해를 돕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PPT로만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키워드로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그 수업 내용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PPT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 내용에 대해 교수님이 필기와 함께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교수님 설명을 듣고 바로 필기를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고 필기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제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스스로 생각한 뒤에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필기하는 방식은 다소 생소했던 화학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 수업을 듣고 직접 필기한 내용

또한,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난 후 3개에서 5개 정도의 약술형 퀴즈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난 후 퀴즈를 풀고 그 답안과 함께 그 주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질문 등을 짧게 적어 이캠퍼스 메시지로 제출합니다. 단지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퀴즈 답안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은 수업 필기를 보면서 이해한 뒤에 다시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서술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미래 생활과 화학 수업의 시험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매주 퀴즈를 통해 그 주에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험 기간에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주 이뤄졌던 퀴즈는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었지만, 더 나아가 자신이 배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유로 인해 관련 지식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었고, 동시에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2. ‘실생활’과 관련된 수업

저에게 화학은 그저 중고등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생활에서 화학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기에 더욱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화학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크게 식품산업, 화장

품산업, 항암제 원리, 제약산업, 뇌 메커니즘, 바이오화학산업,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화학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아서 놀라움을 느낌과 동시에 제 상황에 적용해보며 그 내용을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 중 한 가지를 활용해보자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거나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될 때 우리 몸에서는 혈압, 기도, 심장박동, 위, 장 등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감신경 우위	부교감신경 우위
혈압	높아짐	낮아짐
기도	확장	수축
심장박동	촉진	진정
위	이완	수축
장	연동 억제	연동 촉진

▲ 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우위에 따른 몸의 변화

신경의 우위에 따른 다양한 몸의 변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감신경 우위형 인간에게는 명상과 천천히 걷기, 오랜 시간의 숙면이 도움이 되고, 부교감신경 우위형 인간에게는 빨리 달리기와 단 음식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배우면서 혈압과 심장박동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장과 관련된 부분은 예상할 수 없었기에 실제로 지인에게 이 내용과 함께 교감신경 우위형 인간에게 좋은 대처 방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유와 유산균, 커피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서도 화학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화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3. '소통'을 기반으로 한 수업

이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소통,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1주차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교수님이 학생들을 알아가기 위한 자기소개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려 노력하시고, 수업마다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녹화 수업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는 달리, 온라인 녹화 수업은 상호작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온라인 녹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판서와 함께 교수님 캡 화면,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시는 질문은 수업을 듣다가 잠깐 잃었던 집중력을 되찾고 다시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업에서는 그 주의 수업을 듣고 퀴즈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의 퀴즈는 답안 제출이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제출한 답안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과 함께

소감에 대한 따뜻한 말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함께 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수업 내용에 대한 궁금증 역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수님의 따뜻한 말은 그 한 주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수업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의 마지막 주차에는 수업 영상과 함께 추가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영상에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교양 수업에서도 교수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느꼈고, 더 나아가 제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15주차 수업이 끝난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큼 감동적이었고, 제가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있기에 아직 수업을 들어보지 못한 학우분들이 꼭 들어보길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의 가장 특별한 점은 교수님의 유튜브 개설입니다. 교수님의 유튜브에서는 화학 관련 내용으로 영상이 제작되어 올라옵니다. 방송에서 미처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면서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수업 내용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들도 함께 보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시 듣지 못하고 교수님과의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해 질문이나 소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에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정은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것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에서 소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질지라도, 이 수업에서는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느꼈습니다.

화학에는 무지했던 제가 15주차 수업을 모두 듣고 난 후에는 배운 내용과 관련해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학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를 꿈꾸고 있는 저도 제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점점 학생과 교사 사이의 진실한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로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고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 수업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업 내내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고 대하시는 태도, 그리고 추가 영상을 통해 교수님이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기보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제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에세이로 이 수업의 가치와 장점이 다 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글로 표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고,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더 많은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화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학우분들도 너무 겁먹지 말고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명 그 이전과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화학과 관련해서 흥미가 생기는 것과 함께 수업 외적으로도 얻는 것이 많은 수업임을 확신합니다.

우수상

수강만 했을 뿐인데……. 7대 역량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얻었다?

영어교육과 19학번 신 유 림

제가 수강한 교과목은 사무엘테니 교수님의 영어회화 수업입니다. 정직하게 과목명이 알려주듯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수업입니다. 1학년 과목인 이 수업을 알게 된 제가 한 다짐은 바로 반드시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생이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었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있던 저에게는 피해야 할 1순위 수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원자격증을 위한 필수과목임을 알게 되어 3학년이 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 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영어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위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가 단지 영어듣기와 말하기라는 1가지 역량이 아니라 무려 7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랬기에 A+이라는 성적뿐만 아니라 저만의 특별한 포트폴리오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7개의 역량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강만 했을 뿐인데.. 7대 역량 갖춘 포트폴리오를 얻었다? <이것도, 저것도 담아가! 나의 빈 바구니를 가득 채워준 수업>

1.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

수업은 교수님께서 미리 주제, 영상, 주요 어휘, 내용 이해에 대한 답이 정해진 질문, 토의를 위한 개방적인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업로드 해 두십니다. 그렇게 보통 2개의 영상이 게시가 되어있고, 학생들은 수업 전에 영상을 보고 답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먼저 영상을 보면서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총 16개의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수업이 시작이 되면, 교수님께서 단어 하나씩 읽어주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또한, 영상 대신 기사를 게시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 학생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한 문단씩 읽는데 길지 않은 분량이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교수님께서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점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Vocabulary:

masses (plural noun) -
다수 대중
: many people
infrastructure (N) -
사회(공공) 기반 시설, 인프라
: for example, road, parking lot, parking for bikes
segregated (ADJ) -be divided
분리된/인종 차별을 하는(미국은 옛날엔 분리되어 학급이 운영이 되었다)
: bike routes from sidewalks and car roads
priority (N) -
우선권
:the most important thing
inherently (ADV) - (어린 아이들도 쉽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음)
선천적으로
: naturally
onus (N) -
책임(car driver가 자전거랑 부딪히면 책임이 있다/ 학습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있다)
: duty, responsibility
incentive (N) -
장려책: encouragement
practical (ADJ) -
실용적인: realistic
inspiration (N) -role model 같은 것

inadvertently (ADV) -unintentionally/ unplanned way

nightcap (N)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밤 술 한 잔
drink alcohol before sleep
(professor said nightcap is not good)
deprive (V) -빼앗다
lack of sleep
hasten (V) -rush
make something move faster
rectify (V) -correct

binge (V)/(N) -폭식/ 폭식하다 (한동안 흥청망청하기)
excess something without controlling it
mortality (N) -사망률 death rate
immortal: never die
consistent (ADJ) -steady
behaving in same way to predict the story
spike (V)/(N) -솟아오르다 / 급상승
bad job이 되었다 : spike rate
soar or increasing

▲ 1. 주요 어휘 정리자료

2. 토의를 통한 다양한 관점의 포용능력

먼저 교수님께서 매 주 건강, 케이팝, 자전거타기, 타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사회 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얻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주요 어휘와 영상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후에 교수님께서 랜덤으로 4명 정도씩 조를 나누어서 소회의실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15-20분 정도 동안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토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를 선정하여 소회의실을 나가서 다 같이 모인 후 각 조의 1명의 발표자가 조원들의 의견들을 모아 발표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때 소회의실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 한 방향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심층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토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Discussion Questions:

Are you a fan of KARD?

our team member answers are no
but 지원 listened to their music Hola hola

Do you tend to prefer all-male/female groups over mixed-gender groups?

HS and me don't consider such things.
JW doesn't prefer mixed-gender groups because mixed-gender groups have difficulty to show their own personality.

after he paid attention to
썩쓰리, SW prefers mixed-gender groups .

Do you think mixed-gender groups will become more popular in the future? Why or why not?

HS thinks it will be more popular because the trend returns.
SW thinks it will be more popular because mixed gender groups have various music
JW and me think it will not be more popular because we agree the difficulty in forming a solid and loyal fan base.

Discussion Questions:

What kind of first impression is it important to give during a job interview?

A confident attitude is important. There will be a lot of unexpected things while working, because I think a confident attitud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pe with such things.

In what other kinds of situation, is it important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Even if it is not an interview, the first impression is important in other kinds of situation like team project or meeting. That's why it becomes the fastest part to know the person's personality because it is a state that you cannot know in detail about the person at first. Also, it is important because the first impression is remembered for a long time afterwards.

Based on your own personal experience during online interviews or classes, what other tips or suggestions do you have for a good video interview?

Clean up the desk. In particular, I remove the things such as a water glass that can be a problem by dropping during the interview.

▲ 2. 토의 후 적은 답변 내용

3. 영어작문능력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문서에 답을 작성해 2시간 내에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영상 내용을 듣고 받아쓰면서 영어로 문장을 적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비슷한 표현들에 익숙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와 표현을 쓰는지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 주 수업 이후 1주일 안에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본을 작성해서 영상과 함께 게시하기에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어 작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을 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Who Is Sherlock Holmes?>
 More than a century after first emerging into the fog-bound ga-lit streets of Victorian London, Sherlock Holmes is universally recognizable even his wardrobe and accessories are iconic the Inverness Cape deerstalker hat and calabash pipe. And figures such as his best friend and housemate dr.Watson, arch nemesis Moriarty and housekeeper mrs.Hudson have become part of the popular conscious ness as have his extraordinary infallibe powers deduction utilized in the name of the law. His notorious drug use and his popular catchphrase elementary. My dear Watson and yet many of these most recognizable features of Holmes don't appear in Arthur Conan Doyle's original stories. Doyle's great detective solves crimes in all sorts of ways not just using deduction he speculates and at times even guesses and regularly makes false assumptions. Furthermore, mrs. Hudson is barely mentioned no one says elementary my dear Watson and the detective and his sidekick live apart for much of the time Moriarty. The grand villain only appears in two stories the detective drug use is infrequent after the first two novels and Holmes is rarely in thrall to the English legal system he much prefers enacting his own form of natural justice- sticking to the letter of the law finally many of the most iconic elements of the Holmes lan legend are ois either the deerstalker and cape were first imagined by Sidney Paget the story's initial illustrator.

The curved pipe was chosen by American actor William Gillette so that audiences could more clearly see his face on stage and the phrase "Elementary, my dear Watson" was coined by author and humorist PG Wodehouse so who exactly is Sherlock Holmes who's the real great detective and where do we find him purists might answer that the original Sherlock inspired by Arthur Conan Doyle's University. mentor dr.Joseph Bell is the real on but the fact remains that. That

▲ 3-1. 수업영상 받아쓰기

There are today's contents."
 First I learnt about the genderless in the last class. And the example is about K-pop idols. They look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idols I saw in my childhood. When I was young, many friends bought clothes and shoes of idols and imitated them. And such appearance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clearly different. "
 But now, with the genderless trend, such difference has decreased. Students easily imitate idols while watching TV a lot. So I think the current genderless trend is good. That's why students are unknowingly influenced by the appearances of idols or other celebrities and can get out of the gender stereotypes through genderless trends."
 "
 There is another trend of K-pop called as reverse. Like the Renaissance, it re-examined the songs that existed in the past. Groups that disappeared from TV in the past reappear. In the other words, there is a so-called "reverse driving" trend in which songs released a long time ago are re-examined by receiving public attention through accidental opportunities."
 "
 In the meantime, it evokes the nostalgia of childhood for those who are now adults. It is the new direction as the k-pop trend. That's why most people think K-pop should be new and the direction heads into not the past, but the future. So, I think this reverse trend is also a kind of breaking prejudice. "

▲ 3-2. 유튜브 영상 대본

4. 창의력

교수님께서 토의 대신 조원들끼리 역할극을 하도록 수업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역할극을 위해 대본을 만들고, 역할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필요하며 실제로 다양한 조에서 유쾌하면서도 인상 깊은 역할극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역할극의 형태든지 경청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도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를 활용하여 영어강사로서 쉽고 독특한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 주 약 5분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구성을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다른 학생들의 영상을 서로 보고 최소 5개의 피드백 댓글을 달도록 하여 다른 학생들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주제로 했는지, 같은 주제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창의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comprehension Q>
 Do you think Sherlock Holmes could be good teaching material for your future English classes? Why or why not?
 Yes. I don't think the affection for Sherlock Holmes will disappear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Sherlock Holmes has been steadily adapted not only to books but also to animations and movies.

Activity:

With your group members, please come up with a short lesson that you could teach using Sherlock Holmes as the theme.

물건이 없진 상황이다
 The situation is things are missing in the classroom.
 A: 유림 you are a criminal?
 B: I think so too
 C: Yeah 유림 was the last person who was in the class
 D: But we don't have proof. There is one quote of Sherlock Holmes
 "A theory without proof is dangerous. I'll try to fit the facts to the theory."

▲ 4-1. 역할극 대본

회신: Regulations of Electric kickboards
 2021-10-31 16:44 신유림 에 의해 작성

Dear Eunji

I agree that electric kickboards had a lot of problems and I'm interested in that a lot! So it was lucky that you introduced the subject in detail. I'm surprised at your idea of connecting what you learned about bicycles to an electric kickboard. Also, I liked that you showed specific statistics through pictures. It helped me know the dangers of kickboard accidents objectively and in detail. And it was great to see you thinking deeply about the problem and trying to find a solution. Finally, the flow of your video was consistent, so the content was well understood and impressive. Thanks to your video, I got useful information. Thank you!

From ShinYuRim

▲ 4-2. 내가 쓴 동료피드백 댓글

5. 영어문법 능력

교수님께서서는 유튜브 영상과 함께 게시된 대본을 확인하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피드백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이렇게 매 번 관심을 가지며 댓글을 달아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같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오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어떻게 바꿔써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도 참고하면서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제들과도 직결되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There is some feedback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When you were talking about the video we watched from BBC Learning English, you said, "It is too rude to **do phone** excessively when you are meeting with other people." It would be more natural to express, "It is too rude to **use your phone** excessively when you are meeting with other people."⁴

2. There is some feedback t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When you were talking about the expression "to be out of the loop," you said, "The opposite expression is be in **of the loop**." Actually, the opposite expression is just **be in the loop**." Next, you said, "I enjoyed this so much, so I would like to **share you** guys." Remember that we share things with others. Thus, you should say, "I enjoyed this so much, so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guys." Lastly, regarding the man in the video with the long

▲ 5-1. 교수님의 피드백 댓글

6. 무한 칭찬과 긍정적인 호응으로 얻은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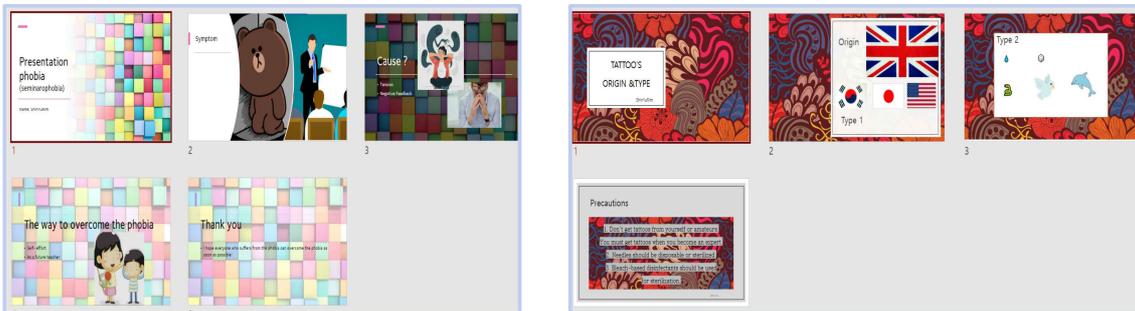
교수님께서서는 발표를 할 때 버벅거리거나 느리게 발음을 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온화한 미소로 기다려 주시며 평가가 아닌 소통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고, 학생들을 호명하고 적극적인 공감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모습덕분에 영어로 소통하는 데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조별 발표 자발적으로 하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도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콘텐츠제작역량

매 주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만든 ppt와 영어로 발표를 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심화학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과 콘텐츠제작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면 강조가 적절하게 되는지, 사진의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참고하여 점차 발전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 5-2. 발표 ppt

3	2021	2학기	영어회화	HABB6001	1	1전선	2	A+
---	------	-----	------	----------	---	-----	---	----

▲ 해당 강의에서 받은 성적

이렇게 그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참여했을 뿐인데 교수님께서 체계적인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자연스럽게 7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A+이라는 성적과 저만의 특별한 포트폴리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음에도 매주 랜덤으로 소회의실에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데니 교수님의 영어회화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대 이상의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영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장려상**어서와 '경제학 원론'은 처음이지?**

경제금융학부 21학번 변 예 진

고등학생 때까지 우리는 표준화된 시간표에 맞춰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해 왔다. 하지만 대학에 오는 순간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찾아 직접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표를 짜기에 앞서 우리는 강의 계획서와 수강생들의 후기를 찾아가며 각자만의 기준으로 듣고 싶은 강의를 찾아 나선다. 강의를 정할 때 흔히 말하는 등록금 아까운 강의는 누구나 안 듣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강의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좋은 강의는 무엇일까?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나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상명대학교에 21학번으로 입학하면서 난생처음 나만의 수업 시간표를 만들 당시, 시간표를 처음 짜다 보니 이것저것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1학기 때는 강좌명만 보고 흥미가 생기는 강좌를 수강했다. 그 결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업도 있었고 큰 만족감을 얻은 수업도 있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는 남들이 좋다는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주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고 재미있다는 강의 위주로 찾게 됐다. 이런 1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좋은 강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생겼다. 바로 서은숙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부터다.

1. '경제학 원론' 수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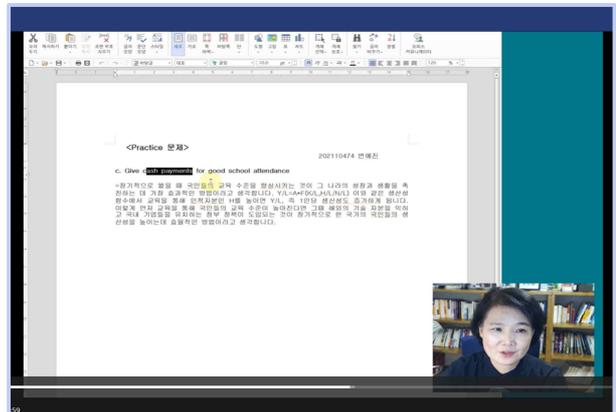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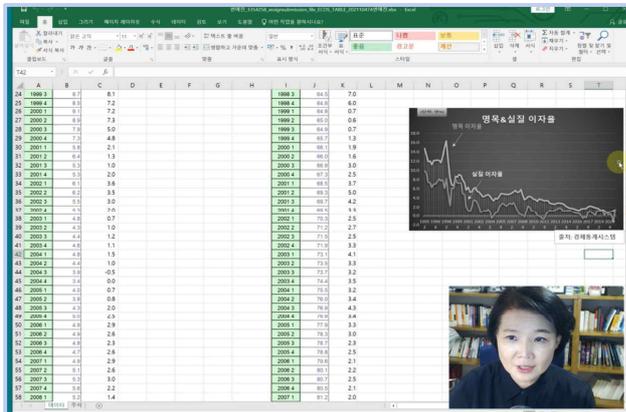
본 교과는 경제금융학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의이다. 주교재인 맨큐의 경제학을 참고하여 거시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는 강의이다. GDP, 물가, 실업, 이자율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 배우고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 분석, 이해를 목표로 강의가 진행된다. 2021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중간고사까지의 수업은 교수님께서 제작하신 녹화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다. 중간고사 이후로는 50명 이하 수업이었기에 대면수업과 실시간 강의를 동시에 2시간 수업을 진행하시고 남은 1시간 수업은 녹화강의를 올려주시는 융합형으로 진행되었다.

2. 추천 이유

서은숙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학습 동기가 유발되는 강의이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수업은 처음부터 달랐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적고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수업에 소속감을 느낄 일이 적다. 하지만 경제학 원론 수업에서는 1주 차에 교수님께서 10명씩 조를 나누어 웹엑스(webex)로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셨다. 미팅은 주로 간단하게 교수님과 전공 관련 대화를 나누고 다른 학우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20분가량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전공 교수님과 대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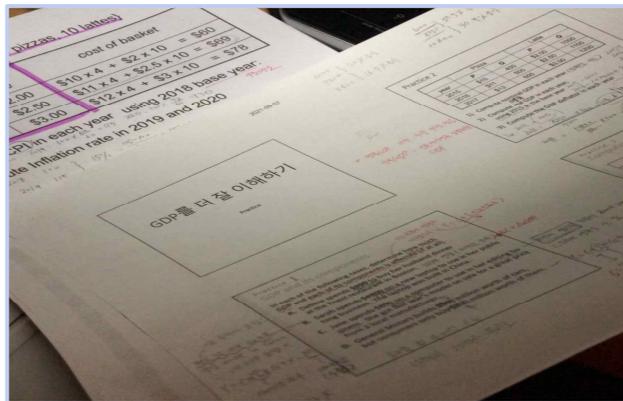
나눠 보는 게 처음이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고 과 동기들도 볼 수 있어서 상명대 경제금융학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이렇게 교수님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좋았던 것 같다. 또 그룹미팅 외에도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이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셨는데 이때는 교수님과 학업, 진로에 관한 상담을 주로 했다. 중간시험 때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를 해주시고 학부생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것을 지금부터 하면 좋을지 조언도 해주시는 등 정성스럽게 면담을 해주셨다. 교수님께서 시험 결과를 보고 격려와 칭찬도 해주시고 학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은 경제학 원론 수업도 더욱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다짐이 강하게 생겼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져주시는 게 느껴지다 보니 강의에 대한 열의도 더욱 생기는 것 같다.

다음으로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과제 피드백을 통해 상호작용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단지 과제를 제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업 시간에 과제물에 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교수님의 review 방식은 개인마다 해주는 것이 아닌 잘한 학우들의 과제물을 통해 어느 점이 좋았고 어느 부분이 추가로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신다. 과목 특성상 경제 현상을 분석하거나 계산 문제를 푸는 등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과제가 많다 보니 개인마다 피드백을 주는 방식도 좋지만 이러한 피드백 방식도 많은 도움이 됐다. 과제를 하다 보면 다른 학우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길이 없어 나만의 시각에 갇혀 있거나 나의 과제물이 어느 수준의 완성도를 띄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른 학우들의 과제물을 통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깨닫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비교할 대상이 생겨 스스로 체크를 할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퀄리티가 높은 동기들의 과제물을 보며 다음 과제는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내 과제물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생기게 됐다. 처음 과제를 했을 때 다른 학우가 한 과제물을 보고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 부끄럽기도 했지만, 교수님의 피드백과 다른 학우의 과제물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다 보니 나날이 발전하는 과제물에 뿌듯해지기도 했다. 또한 과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얻기도 하고 배운 내용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과제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되는 것 같았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가장 큰 학습 문제가 집중력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금방 안일해지기도 하고 나중으로 강의를 미뤄두기도 하는 등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안일해질 때마다 다른 학우들이 한 과제를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내 과제물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제를 열심히 하려는 목표가 생기다 보니 다른 강의보다 수업을 제때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다.



▲ 5, 6주 차 과제 설명 영상에서 영상에 소개된 필자의 과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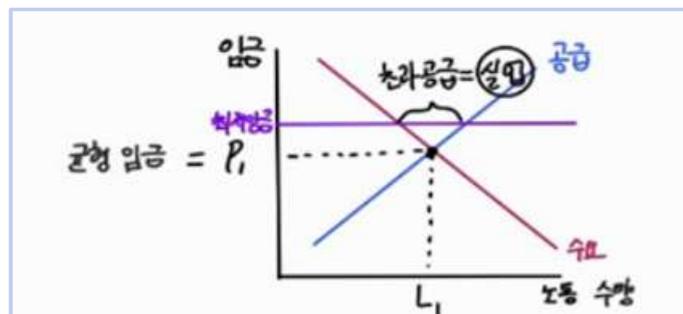
이 강의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업 중 다양한 문제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경제학 특성상 공식이 많은데 공식만 아는 것하고 이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연습 문제를 통해 이를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이론을 배우고 나서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였다. 중고등학생 때처럼 기출 문제집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연습 문제 자료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학습에 있어서 큰 보조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 연습 문제 수업자료 중 일부분

3. 강의를 통해 느낀 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이해'를 하라고 강조하신다. 이론을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를 하라는 것이다. 가령 구조적 실업에 관해 공부할 때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적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래프를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왜 이런 실업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노동의 수요공급이 일치할 때 생기는 임금을 균형 임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저임금제로 인해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임금이 책정될 경우, 노동이 초과 공급되면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 수업 시간에 구조적 실업 예시를 그래프로 나타낸 필기

이런 식으로 경제학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 항상 의구심을 품고 차근차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됐다. 교수님의 이러한 이해 중심의 수업은 시험에서도 단순 암기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배운 것을 응용해서 넓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주로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준비할 때 암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보다 고차원적으로 사고하여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론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내주신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지 많은 궁리를 하며 공부했다. 처음으로 대학에서 진정한 공부를 하는 기분을 받았고 그 결과 성적에서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8	HAFB0001	경제학원론	1전선	3	13.50	A+
---	----------	-------	-----	---	-------	----

▲ 해당 강의 성적

또한 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응용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GDP를 배우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명목 GDP, 실질 GDP 자료를 찾아 비교해보기도 하고 2021년 명목 GDP를 예측해보기도 하는 등 통계자료를 이용해 표를 제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이론이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동시에 경제학을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됐다.

4. 좋은 강의에 대한 고찰

앞서 서은숙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수업을 통해 나만의 좋은 수업이라 생각하는 기준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한테 있어 좋은 강의란 교수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배려해 주고 수업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과 적절한 피드백이 있는 강의다.

강의를 듣다 보면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보지만 이에 대해 점수로만 평가받을 뿐 피드백을 주는 교수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과제와 시험을 통해 내가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피드백 없이 학생 혼자서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90명 이상 수강하는 대형강의에서는 일대일 피드백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항상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 그렇기에 피드백이 있는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 수업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려는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교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나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기에 학생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은숙 교수님의 강의는 이런 면들에 해당하기에 이 강의를 다른 학우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다.

물론 사람마다 좋은 강의를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각양각색이므로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고른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왕이면 남이 정한 좋은 강의가 아닌 자신의 기준에 맞는 강의를 찾아 듣는 것이 자신이 발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자기만의 좋은 강의 기준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장려상

교양보다 더 좋은 교양

화학에너지공학전공 21학번 유혜선

제가 수강한 우수강의는 방영심 교수님의 ‘사고와 표현’ 수업입니다. 저는 융합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부 화학에너지공학전공 학생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대생’입니다. 전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저는 중고등학생때부터 글쓰기, 발표 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과, 즉 자연계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입학할 때 ‘사고와 표현’ 과목이 교양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듣고, ‘난 글쓰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인데, 왜 글쓰기 수업이 교양 필수 과목이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과목이 왜 필수 과목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교양’의 정의는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교양이라는 정의에 의하면 방영심 교수님의 사고와 표현 수업은 ‘교양다운 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사고와 표현 수업은 ‘대학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글쓰기’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맞게 수업은 글쓰기의 과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비평문을 작성하는 법,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법부터 각종 어문 규범과 인용하는 방법부터 발표 방법에 대해서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교양’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계획서를 읽고, 교수님께서 첫 주의 OT 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대학생이 썩아야 할 ‘교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강의가 왜 교양 필수 과목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와 표현은 3학점 수업으로, 1학점과 2학점으로 나누어 각각 수요일, 금요일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수업 시간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시간과 2시간으로 나누어서 수업하는 것이 3시간을 통째로 이어서 수업하는 것보다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피로감이 적으니 그에 따라 강의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요일엔 ‘아, 오늘은 1시간만 수업하는구나. 열심히 들어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1시간 정도는 집중해야지.’하는 생각에 더욱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요일마다 강의 주제를 끊어서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몰입감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영심 교수님께서서는 딱 한 번의 보강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업을 웹엑스를 통해서 실시간 강의의 형태로 진행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교수님들께서 녹화 강의의 형태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녹화 강의의 장점도 존재하지만,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학생과 교수자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방영심 교수님께서는 실시간 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게 눈에 잘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을 호명한 뒤 강의 자료를 직접 말로 읽어보게 하거나, 웹엑스의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을 나누어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연습 문제를 푸는 등의 다양한 조별 활동을 했습니다. 조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조별로 활동한 내용을 제출하게 하셔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셨습니다. 또한 당일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연습 문제를 매 수업마

다 푸는 등 교수자만 수업하는 일방향 수업이 아닌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정다혜(2021: 20)에 따르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콘텐츠-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대체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낙오되는 학생 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끝까지 함께 해서 전반적인 수업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학기가 끝나고 대부분의 평균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체로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 중간에 낙오되는 일 없이 끝까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글쓰기’란 능력은 그리 쉽게 길러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3~40대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의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글쓰기’ 능력은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늘지도 않고, 필요에 비해서 잘 늘지 않습니다. 저도 강의 초반까지는 ‘교수님은 좋은 분이신데, 그런다고 내가 글을 과연 잘 쓸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교수님께서서는 미리 잘 알고 계셨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실시간 수업 중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질문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수업 중 의문이 생기고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뒤에 등장하는 내용까지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영심 교수님께서서는 모르는 점은 즉시 질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잘 모르겠는 내용은 바로바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어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나 시험 전 주 등 다양한 시간에도 질문을 받아주시고, e-campus 상의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서도 계속 질문을 받아 주셔서 모르는 점 없이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매 시간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 안에 글쓰기 연습을 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위의 첫 번째 이점과 어우러져서 좋은 시너지를 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음과 같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방금 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막상 문제를 풀거나 응용해보려고 할 때, ‘어?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엔 어떻게 하지?’하고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칫 잘못하면 ‘방금 배운 내용인데 모르다니, 난 바보야. 앞으로의 수업도 잘 따라가지 못할거야.’라는 생각에 좌절감에 빠져 수업을 잘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의 경우엔 연습 문제를 수업 시간 ‘안’에 풀고, 교수님께서 계속 학생들을 둘러봐 주시기 때문에 연습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나 잘 모르겠는 내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교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통해 글쓰기에 자신감을 붙일 수 있었고, 스스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1 개별 글쓰기 클리닉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위의 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그렇게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과제로 약 10페이지 이상의 꽤 긴 글을 직접 써 보는 ‘학술적 글쓰기’가 존재했습니다. 학술적 글쓰기 과제는 앞서 배운 ‘글쓰기의 과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개요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 경우나 본문을 잘 못 쓰겠는 경우 등의 개인의 선호에 따라 1차 또는 2차 제출 후에 1:1로 웹엑스를 통한 개별 클리닉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개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차 제출 후 클리닉을 진행했는데, 클리닉을 통해 개요의 전반을 학술적 글쓰기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요를 수정하면 글이 전체적으로 통일되는지 등을 개요의 항목마다 상세하게 알려주셨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단락의 들여쓰기 오류 등 간단한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좋은 글이 되는지 등 상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학술적 글쓰기와 글쓰기 클리닉을 통해 수업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직접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재미있게, 또 알차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잘 몰랐던 글을 인용하는 방법부터 헛갈리는 어법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대체 과제였던 비평문 쓰기, 기말고사 문제 중 하나였던 자기소개서 작성, 과제였던 학술적 글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직접 해 보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자신 없었던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는 게 느껴졌고, 그 결과 기말고사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수업에서 최고 학점을 받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와표현	교필	3	13.50	A+
-------	----	---	-------	----

▲ 해당 강의에서 받은 성적

23.50 / 23.5 / 16.59

▲ 해당 강의 기말고사에서 받은 성적. (취득점수/최고점/평균)

좋은 결과가 뒤따른 점도 뿌듯했지만, 이 강의를 수강하고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등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저는 평생 ‘글쓰기’라는 것과는 벽을 쌓고 살아왔는데, 이 수업을 수강한 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강의를 수강하기 전의 저는 글쓰기 이외에도 저는 ‘발표’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글쓰기는 어찌저찌 쓸 수는 있었지만, 발표의 경우엔 발표라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곧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과도한 긴장을 통해 온 몸이 떨리며 눈 앞이 새하얗게 자꾸 말실수를 하거나, 랩을 하듯이 너무 빨리 발표를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글쓰기에 약간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며 발표에도 조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워낙 좋기도 했고, ‘혹시 글쓰기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하기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표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마다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수님 덕분에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교수님의 격려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직접 하고 나자 앞의 생각에 이어 ‘생각보다 발표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었구나. 이제 발표라는 걸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의 콤플렉스였던 발표 공포증이 조금이나마 극복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공포증이 언제 완전히 극복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 순간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수업을 통해서 제 콤플렉스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업이야말로 ‘교양다운 교양’을 넘은 ‘교양보다 더 좋은 교양’, ‘인생 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는 다른 학우 여러분도 ‘교양보다 더 좋은 교양’, 인생 강의를 꼭 찾아 다양한 능력들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복습이 복습을 낳는 복리 학습법

지적재산권전공 18학번 황 유 정

들어가는 말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는 말, 누구보다는 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 4학년까지 학업을 이어오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쩔 수 없이 오래된 기억은 잊혀지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현상에서 학습해온 이론과 경험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기 마련이죠! 그런 과정에서 복습이라함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성적내역		* 주의 : P/F 교과목은 신중학점 및 평균영준 계산시 제외됩니다.									
수강신청학점계	129	(평균영준반영)신청학	124	취득학점	136	평균계	521.50	평균영준	4.20	백분율	96.00
No	학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균계	평균영준					
1	2021	2학기	6	6	27.00	4.50					
2	2021	1학기	15	15	67.50	4.50					
3	2020	2학기	18	19	81.00	4.50					
4	2020	1학기	21	21	87.00	4.14					
5	2019	통계 계열수업	0	3	0.00	0.00					
6	2019	2학기	17	19	73.00	4.29					
7	2019	1학기	17	18	66.00	3.88					
8	2018	2학기	14	18	55.00	3.92					
9	2018	하계 계열수업	0	1	0.00	0.00					
10	2018	1학기	16	16	65.00	4.06					

▲ 사진 1. 전체성적내역

저는 올해 2월을 끝으로 대학 4년 과정을 모두 끝마치고 총점 4.2점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장학수혜목록						
No	학년도	학기	장학구분	대가구분	장학금코드	장학금명
1	2020	1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22	학과차석

장학수혜목록						
No	학년도	학기	장학구분	대가구분	장학금코드	장학금명
1	2021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16	학과수석

▲ 사진 2. 학과 차석 및 수석

학과차석, 학과수석을 거쳐보며 누군가에게는 매우 칭찬받을 성적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는 지난 4년 동안 헛되이 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주기도 하는 긍정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도와준 저만의 학습방법에 대해 소개하여 상명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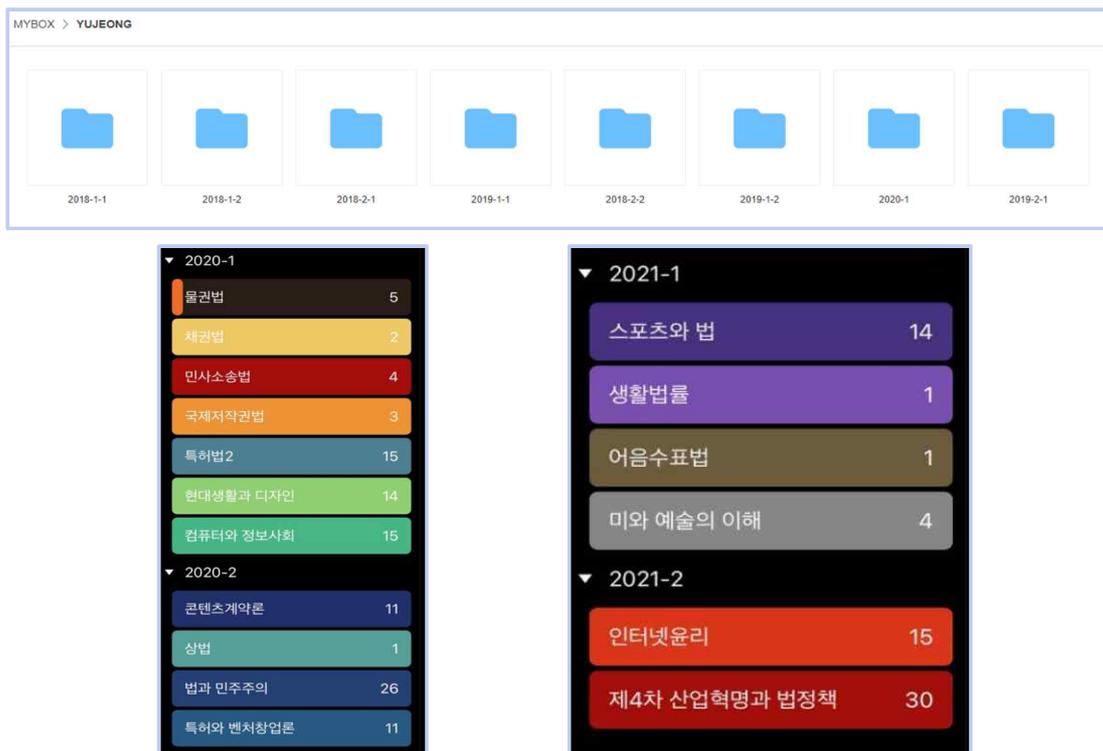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보려 합니다. 이 글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와 어떻게 대학 공부를 해야할 지 막막한 신입생과, 나름의 공부방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공부 하지만 눈에 띄는 성적 향상이 보이지 않아 걱정인 학우,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가지고 싶지만 아직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지 못한 학우, 학습방법에 변화를 주고 싶은 학우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만한 글임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덧붙여 법학을 공부하는 학우라면 더더욱 꼼꼼히 읽어보시고 한번 쬐은 실천해보시기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1. 동 기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마다 느꼈던 걱정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내용이 점점 많아질수록 처음 배웠던 내용들이 점점 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학교 학사운영 일정은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진행되는데,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배운 내용은 잘 기억이 났다가 4주차 정도 되면 1주차에 배운 내용이 머리 속에서 지워지고 이어서 5주차 학습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2주차 학습내용이 사라지고... 이러한 과정이 연쇄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험 때 어떻게 이 많은 양을 공부하지? 라는 생각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도 불안이 짙어지곤 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도 먼저 배웠던 지식이 머리 속에서 오래 남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올바른 연결화된 공부를 위해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마침내 ‘복리 학습법’을 개발하여 공부해왔습니다.

2. 사전작업

2-1. 정리하는 습관 들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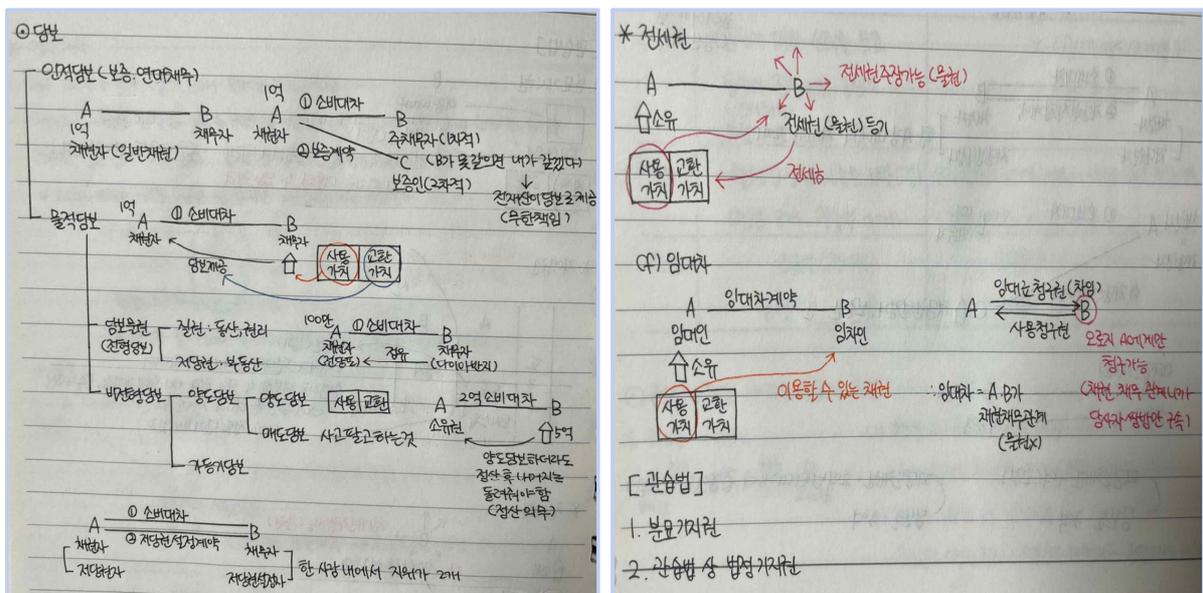
▲ 사진 3. 노트북 및 아이패드를 활용한 필자의 정리방식

‘복리 학습법’을 위해 중요한 사전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본 학습법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활습관을 길들이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평소 주변이 산만하거나 학습여건이 온전치 못하고 산만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어디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년도-학기별로 과목을 정리하는 습관부터 들여보기를 추천드리며, 그 폴더 안에는 본인이 수강하며 참고하였던 참고자료, 수강자료, 학습자료 등을 보관하며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후에 자신이 수강했던 강의를 확인할 때, 수강자료를 찾아볼 때 등 매우 유용합니다! (4학년이 되니 취업준비를 하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와 수강했던 과목을 연결지어 써야하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미리 정리를 해두면 필요 시 찾아보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2-2. 50분 간의 받아쓰기 (feat. 녹음)

50분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 중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가능한 모든 수업 내용을 ‘받아쓰기’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받아쓰기’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차별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받아쓰기를 하기 전 대학교 1학년 전공수업 때 필기하던 방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 4. 대학교 1학년 필기방식

이때는 단순히 교수님께서 판서에 적어주신 수업내용을 그림그리듯 요약하여 필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단순히 ‘예쁘게’정리하는 것에 급급했던 것 같네요(많은 여학생들이 이런 압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기방법은 수업 중, 수업 직후 밖에 유효하지 않으며 복습을 위해 다시 꺼내들었을 때에는 유기적인 수업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앞·뒤 인과관계를 연결할 수 없는 말그대로 꺾뎠기 필기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기를 했지만 내가 뭘 적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나는지 과정은 적혀있지 않고 결론만 필기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위한 필기가 아니라 예술적 그림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기 방식에 완전한 변화를 쫓았습니다. 아래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바뀐 필기방식으로, 받아쓰기 필기방식입니다.

I. 민법 상 철회
 민법 상 철회의 의미는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지지하여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행위를 의미한다.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규정은 상대방에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뜻한다. 반대로 말하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함을 뜻한다.

II. 소비자계약법에서의 청약철회권
 민법에서 말하는 철회에 따르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을 때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반대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한 것인데, 소비자계약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철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폭넓게 배려해주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만약 방문 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단순변심으로 철회한 경우 방문판매사원은 그 구매자에게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방문판매법 59). 소비자계약법에서의 청약철회권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법적 용어는 ‘철회’로 표기되어있지만 실상 법적 성질은 ‘취소’나 ‘해제’로 보아야 마땅하다.

-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이유

소비자의 충동적인 구매를 바로 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그 계약에 대해 숙고해볼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의사표시이론에 의하면 소비자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불완전한 효과의사로 판단되어 철회할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통해 강요된 거래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 청약철회권 인정 범위

신용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이다.

▲ 사진 5. 수정한 받아쓰기 필기방식

사진으로 보니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선과 도형을 없애고 글로써 풀어쓰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50분 간의 수업시간 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업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쓰기’하면 됩니다. 덧붙여 혹시 놓칠 상황을 대비하여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거나 비대면 수업일 경우 화상강의 어플리케이션 내 녹화기능을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우리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Webex의 경우 녹화기능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받아쓰기의 경우 자필로 따라가기에는 무조건적인 무리가 존재합니다(저도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전에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여 수업 종료 후 집에서 재생과 정지를 반복하며 자필로 옮겨 적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고생까지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지하신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적극 활용하셔서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받아쓰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받아쓰기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놓쳤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빠진 부분의 시간을 메모해두셨다가 수업종료 후 미리 녹음/녹화해둔 파일을 부분적으로 청취/재생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해당 수업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교수님의 수업내용에 대한 ‘대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회사에게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매매대금 50억 중 10%인 5억의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6/1에 해당 장치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5/15에 해당 장치가 원인으로 오작동에 의해서(채무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파손되어서 폐기되었다.

(반약 매수인 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537 1항에 의거, 같은 물에 대해서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매수인 물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민536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물의 귀책사유가 후발적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 환되는 것은 어림(같은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장치는 특정물(생산물이나 물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해당 장치 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 반대로 물은 치료장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급부청구 권을 상실하게 됨.

->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후발적불능인 경우 본래의 채권(코로나치료장치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됨.

제2회 제6번 - (현,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㉔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의 법적 성질: 법률행위/준법률행위/사전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루어짐.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
-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 법률효과: 권리와 의무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1)면제 (2)상계 (3)대물변제 (4)공탁 (5)경계 (6)변제 (7)혼동

- 면제, 상계, 대물변제, 공탁, 경계 5가지의 경우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한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임.
- 면제의 경우 채권자의 단독행위(돈 안갠아도 돼)이며,
- 상계의 경우 채무자의 단독행위

ex)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억 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채권)이 생김,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1억 원의 금전을 빌렸을(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억 원의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 이때 을이 "나도 나에게 줄 돈이 없고, 나도 너에게 줄 돈이 없으니 없던 것으로 하자." 라고 하는 것을 상계라고 함. 채무자의 단독행위임.

• 대물변제, 공탁, 경계의 경우 계약에 해당함. **주요한 점: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 공탁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음.
- 다수설: 제3자(채권자)를 위한 임차 계약(사법 상 계약), 공탁소가 끼어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사법 상 계약에 해당함.
- 반례: 공법행위(채무자가 공탁소에 변제해줄 목적을 맡겨두지만 해버리면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탁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공탁소(국가기관, 실질은 은행에서 공탁업무를 하고 있음)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끼어있기 때문에 공법행위라고 보는 것임.
- 대물변제: 채무자가 물건으로 갈음제와 채권자(주)의 의사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해당함.

계약의 종류

-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요율계약: 당사자의 합의 이외의 물건이나 돈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
- 대물변제의 경우 물건의 인도도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요율계약에 해당함.

(반약, 물건의 인도를 하지 않고 먼저 "송용차로 갈아도 돼?"라는 청약에서 "그래"라고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며 이때는 낙성계약에 해당함)

- 경계: 채무의 주요한 부분(금부 등)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 ex)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공동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동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됨. 이때, 매수인 을이 이행기에 돈이 없어서 매매대금지급청 구를 불이행함. 이 경우 매도인 갑은 그렇게도 불행하고 여전히 이 공동물을 물에게 팔고 싶어하고 물도 갑에게 해당 공동 물들을 사고 싶어함. 그래서 같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공동물(사기 1억)을 넘겨주면서 1억을 빌려준 것에 대해 갑은 고맙다. (기존의 채무는 1억 매매대금지급의무, 신채무는 1억 금전지급의무가 됨).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 명하다면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준소비대차계약과 경계는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된 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경계의 경우 기존채무와 신채무 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음, 반면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 채무 간의 동일성이 있다고 봄.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간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의 보증이나 담보 는 여전히 존속하게 됨. 경계계약으로 보게 되면 기존채무와 신채무 간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채무에 붙어있었다.)

• 공유지분(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해 각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은 토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 2분의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매우 관념적. 그래서 공유의 개념 자체가 관념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 2분의1 지분만큼만 대해서만 점유취득시효를 완료하려고 해도 해당 토지 전부를 점유해야함. 공유 지분은 토지 전부분에 미치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해당 토지 전체를 점유하지 않으면 공유지분(갑의 2분의1 지분)을 취득시효로 완성시킬 수 없음.

ex)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해 각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음. 근데 병이 해당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때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병이 취득하는 것인데 공유지분만큼만 취득하는 것은 지인 지대만 문제가 있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병의 자주점유자와 갑과 을의 의사에 달려있음.

만약 갑이 계속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였고, 병은 갑의 주장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경우 병은 해당 토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던 한때 갑은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였고 취득시효를 계속적으로 중단했음. 반면에 을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 이 경우 결국 병이 점유는 공유자인 갑이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였고, 그 동안 공유자인 갑이 있다는 것을 용인한 점유가 되는 것임. 그리고 갑도 병의 취득시효를 계속적으로 중단시켰기 때문에 공유지분이 없어지지 않음. 하지만 을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병은 을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 이 경우 비록 병이 부동산 전부를 점유했다할지라도 갑의 지분권은 소멸되지 않고 을의 지분권만을 병이 점유취득함.

결론적으로 병이 갑의 지분권을 용인하면서 해당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한 경우 갑의 지분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고 을의 지분권에 대해서는 완성시킬 수 없음. 병이 취득시효를 완성시키면 종전에는 갑과 을이 공유관계였다면 이제는 갑과 병의 공유관계로 전환되는 것임.

9-1 (종합수업시작)

부분소유권공유관계

갑과 을 사이에 내부적으로 따로 특정부분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본래따라따라 가지려던 하나의 물건에 두개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함) 공유관계로 등기한 경우(부분소유권공유관계라고 함), 이때 원래는 을의 땅이었는데 갑이 땅을 물로부터 나눠서 매수한 경우 을이 그렇게는 안되고 내부적으로 분할 사용하려고 합의하면서 공유지분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의 명의로 해줌(각각 2분의 1씩 갖는 것으로). 그 후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갑이 가진 부분의 땅에서 기찻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을이 등기는 2분의 1씩 갖고 있는데 왜 내가 그 땅을 쓰느냐고 주장했을 때 갑은 이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시효취득은 자신의 소유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두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 서나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시효취득 불가능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능함.

2)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언하게(자주점유)

- 자주점유: 소유의사(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유용하는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절도범도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될 수 있음.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의
- 타주점유: 자주점유이외의 점유

자주점유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

- 1) 판례: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 + 점유와 관련된 모든사정을 보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
- 2) 소수설: 소유의사의 여부 통해 결정 -> 있다면 자주점유 / 없다면 타주점유 -> (비판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버리면 엄청난 법률관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고(일몰일권주의에 의해) 점유자는 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심적 의사인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음(법률관계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 그래서 판례가 객관성을 따르는 것임.)

과거판례) 점유취득의 요인이 된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만을 보고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했으나 현재는 점유취득의 요인이 된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1차적 기준,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

▲ 사진 6. 받아쓰기를 통해 만들어진 필기

받아쓰기 필기방식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다보면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는 미담 등도 메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노트필기를 하는 이유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공부를 할 때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예쁘게 꾸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내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미담이라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이 경우 학생들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생활에 빚대어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기에 이 내용이 알차면 경우가 많습니다. 후에 노트를 열어봤을 때 단번에 이해되기가 쉽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받아쓰기' 필기방식의 부가적 효과 중 하나는 어느 정도 해당 필기법에 적응 되면 교수님의 모든 수업내용을 받아적기 위하여 50분의 시간 동안 초집중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게 된다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잠깐씩 해찰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벌써 50분이 지났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위 말하는 '시간 삭제'를 경험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수업 중 조는 시간은 더더욱 사라지겠죠. 만약 받아쓰기 필기방식이 아닌 요약필기,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의 결론만을 필기하는 습관을 가진 수강자는 수업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구간에 빠져드는 순간 급격한 집중도의 저하와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졸음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신 차려보면 중요한 부분도 이미 다 지나가버려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죠(다들 경험했으시죠? 히히).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필기방식만 바뀌어도 학습효과는 천차만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했던 '대본'이 완성된다면, 이제 사전준비가 완료된 것이고, 사실 받아쓰기 필기법까지 오셨다면 거의 80%는 성공하신 겁니다!

3. 복습이 복습을 낳는 복리 학습법

앞서 말했던 사전준비가 모두 완성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리 학습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통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받아쓰기 필기 만들기	1주차 1회독
2주차	받아쓰기 필기 만들기	1주차 1회독 + 2주차 1회독
3주차	받아쓰기 필기 만들기	1주차 1회독 + 2주차 1회독 + 3주차 1회독
4주차	받아쓰기 필기 만들기	1주차 1회독 + 2주차 1회독 + 3주차 1회독 + 4주차 1회독
5주차	받아쓰기 필기 만들기	1주차 1회독 + 2주차 1회독 + 3주차 1회독 + 4주차 1회독 + ...
⋮	⋮	⋮

1주차 강의를 수강하면서 받아쓰기 필기를 만든 뒤 바로 1회독을 진행합니다. 그 후 2주차 강의를 수강할 때 받아쓰기 필기를 만들고 1주차 필기 1회독 후 바로 2주차 필기를 이어서 1회독 합니다. 또 이어서 3주차 강의 수강 시 받아쓰기 필기를 만들고 1주차 필기 1회독, 2주차 필기 1회독, 3주차 필기 1회독을 진행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1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은 점진적으로 회독하는 횟수가 누적되다보니 잊혀질 일이 전혀 없고, 이전 차시와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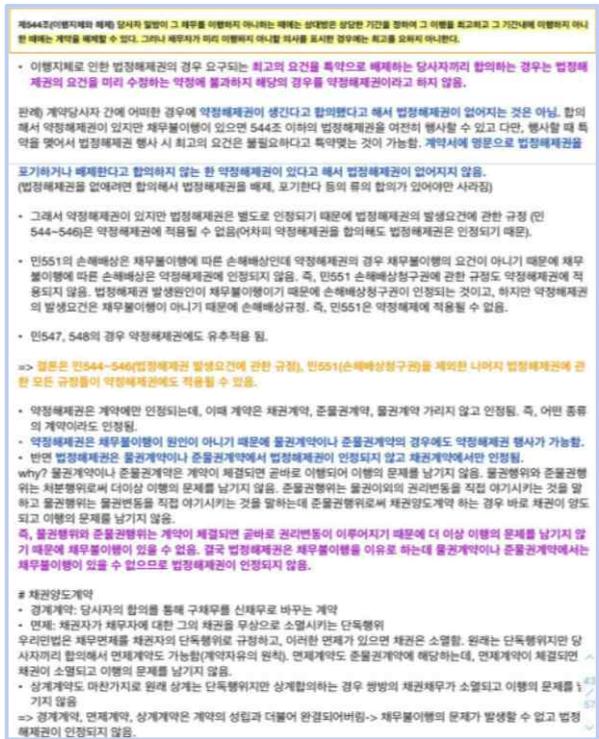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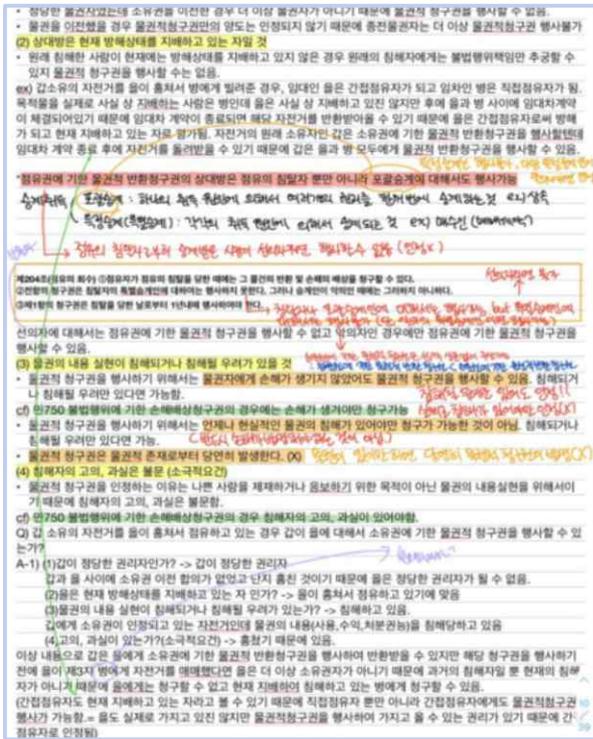
다만, 이런 과정을 진행하다보니 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주차가 늘어날수록 공부량이 방대해져 부담스러웠던 점이 사실입니다. 약 7주차 정도 되니 1주차부터 그 날 공부한 7주차 필기까지 총 1~7주차 필기분량을 회독하는 것이 벅차졌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점을 수립한 결과, 비교적 공부하기 수월한 교양과목의 경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고, 비교적 공부량이 방대한 전공과목의 경우 1~4주차, 4~7주차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사일정으로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필기노트를 만들고 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교 양	
1주차	1
2주차	1+2
3주차	1+2+3
4주차	1+2+3+4
5주차	1+2+3+4+5
6주차	1+2+3+4+5+6
7주차	1+2+3+4+5+6+7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9
10주차	9+10
11주차	9+10+11
12주차	9+10+11+12
13주차	9+10+11+12+13
14주차	9+10+11+12+13+14
15주차	보강주
16주차	기말고사

전 공	
1주차	1
2주차	1+2
3주차	1+2+3
4주차	1+2+3+4 (1,2,3,4 따로 또 정리)
5주차	5
6주차	5+6
7주차	5+6+7 (5,6,7 따로 또 정리)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9
10주차	9+10
11주차	9+10+11 (9,10,11 따로 또 정리)
12주차	12
13주차	12+13
14주차	12+13+14 (12,13,14 따로 또 정리)
15주차	보강주
16주차	기말고사

저는 지적재산권 전공이다보니 대부분의 전공수업이 법 과목이라서 매주차 공부량이 A4 5장 정도로 방대하여 기준점을 조금은 촘촘하게 조정하여 공부하였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학생분들의 전공과 공부분량에 맞춰 기준점을 조절한다면 더 좋은 학습법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복리 학습법은 기준점이 촘촘하지 않을수록, 쉽게 이야기하여 위의 표에서 교양 커리큘럼에 가까울수록(이전 주차 회독량이 많을수록)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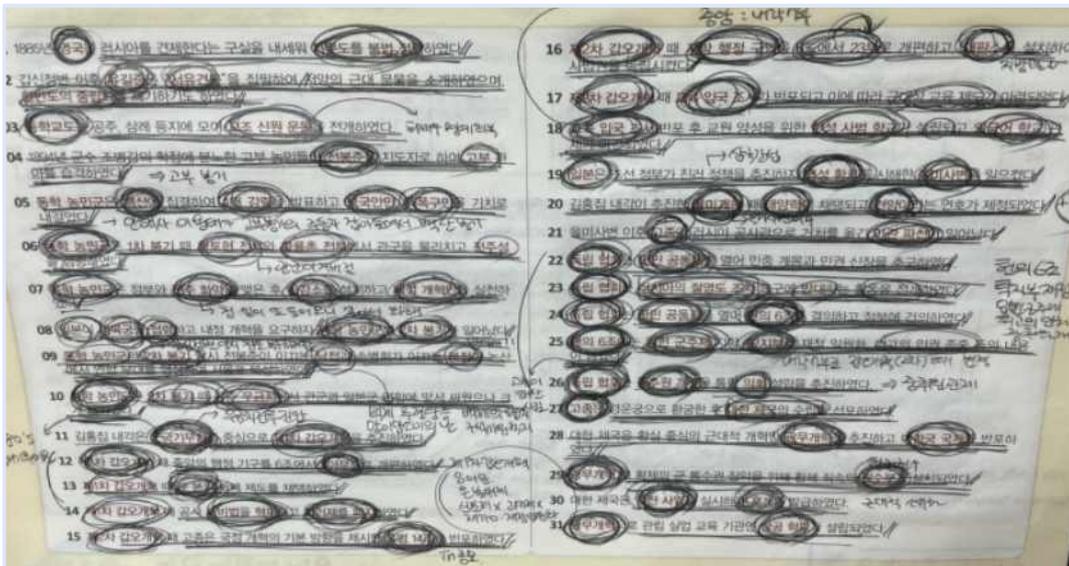
이렇게 공부하다보니 시험기간에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교양과목은 무난하게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전공과목의 경우 미리 만들어 놓았던 받아쓰기 필기와 중간에 만들어놓은 요약집을 다시 회독하며 공부한 결과 A학점 이상의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필자의 전공 총 학점은 4.3점입니다).



▲ 사진 7. 회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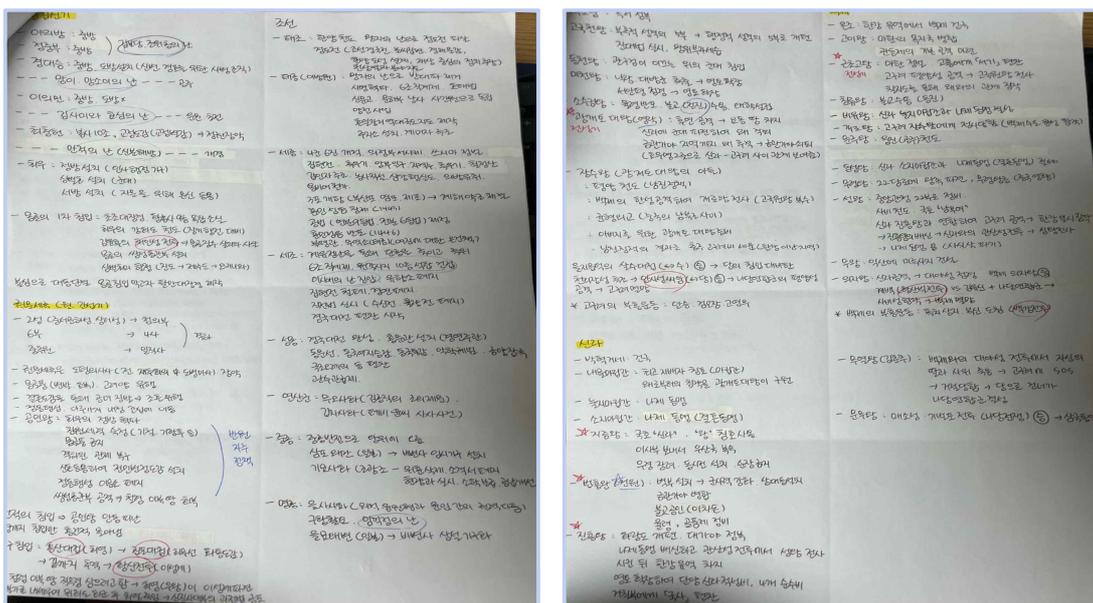
회독할 때에는 색깔펜을 이용하여 본인이 회독한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회독을 할 때는 주황펜, 2회독 때에는 파란펜 등 펜 색깔에 차별점을 두어 본인이 몇 번이나 회독을 하였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부분이 정신 사납다고 생각이 든다면 노트 상단에 도형으로 체크한다거나 나름의 방법을 터득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사항을 항상 체크해서 다음 수업 전 교수님께 질문드릴 사항을 색깔펜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회독을 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해결되는 문제는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운이 좋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복리 학습법’을 통해 대학 4년 생활을 후회없이 마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이러한 학습방법을 자신있게 추천 드려봅니다!



▲ 사진 9. 복리 학습법을 적용한 한국사 공부

사진에 있는 자료는 최태성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셨던 강의 요약자료입니다. 총 40강의 각각의 요약 자료를 제공해주셨는데 여기에 복리 학습법을 적용하여 1강 공부 후 1강 요약집 1회독, 2강 공부 후 1강 요약집 1회독, 2강 요약집 2회독, 3강 공부 후 1강 회독, 2강 회독, 3강 회독... 의 과정을 반복하여 총 40강의 강의요약집을 40회독 하였습니다(파란펜, 검정펜, 노란펜, 연필, 샤프 등을 번갈아가며 사용했는데 겹쳐진 흔적이 많아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중간 중간 회독 양이 방대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시대·왕 중심으로 A4 용지 한 장에 맞춰 중요한 부분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회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 사진 10. 키워드 중심의 요약 정리집 만들기

그 결과 총 3회의 도전 만에 결국 제56회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회차 (시험일)	수험번호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등급
황유경 (1999-04-30)	56회차 (2021-10-23)	106030111	56-102098 (2021-11-05)	1급
황유경 (1999-04-30)	55회차 (2021-09-11)	106020107	55-217161 (2021-09-24)	2급
황유경 (1999-04-30)	54회차 (2021-08-07)	106030088		



▲ 사진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여정기

이뿐만 아니라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실기의 경우도 복리 학습법으로 최종합격까지 이뤘습니다. 현재는 복리 학습법으로 토익공부와 영어회화 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목명	합격/자격번호	합격일자
컴퓨터활용능력 1급(K)	21-K9-136107	2021.11.26

▲ 사진 12.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

5. 글을 마치며

처음 복리 학습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직접 느꼈습니다. 그 후 직속 후배들에게 이 학습법을 알리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는 학습자료와 노하우를 전수해 공부하는 데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학과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을 통해 학교 전체에 공유해 학우들의 학습 방향에 조금이나마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쓰기로 마음 먹고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들 저마다 나름의 고민거리와 학업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업에 있어서 방향을 헤메고 있거나 고민거리에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글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도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혹시나 학습방향이나 학습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메일(j100499@naver.com)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우수상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만드는 시각화 공부법

역사콘텐츠전공 20학번 이 예 은

1. 0.5만큼 성장하고 있는 공부법

1학년 때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많은 방향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학생회에 가입하고 공부 방식에 “트리구조”를 활용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학기 동안 변화에 적응하며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효율성 및 공부의 집중도 등 여러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백문불여일견”의 고사성어처럼 “구조화”가 핵심이었던 기존의 공부법에 “시각화” 단계를 추가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면서, <표 1>, <그림 1>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교내 글쓰기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발전시켜서 실제로 큰 효과를 낸 학습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기	성적
1-1	4.13
1-2	3.34
2-1	3.81
2-2	4.34

▲ 표 1. 성적 향상

시상내역	전공	학번	이름
최우수	경영학과	20*****52	임*연
우수	글로벌경영학과	20*****32	정*환
장려	휴먼지능정보공학과	20*****72	김*영
장려	역사콘텐츠학과	20*****35	이*림
장려	역사콘텐츠학과	20*****21	이*은

▲ 그림 1. 영어 에세이 경진 대회 수상 경력

외국어튜터링 프로그램	의사소통능력개	30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원
SMHerald에세이콘테스트	신문방송국	15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원
외국어경연대회	의사소통능력개	2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원
자기주도학습전략공모전	교수학습개발센	15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원
찾아가는비교과교육과정피어오름설명회	비교과통합지원	2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원
전문가소통특강:글쓰기,말하기,토론	의사소통능력개	2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원
상명 프레젠테이션대회	의사소통능력개	15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장
토론모임:생각나눔가치나눔	의사소통능력개	40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원
독서모임:책나눔인생나눔	의사소통능력개	30	2021-09-01 09:00 ~ 2022-02-28 18:00	팀장
프리피어오름활동(취업)	비교과통합지원	40	2021-09-13 09:00 ~ 2021-11-30 18:00	팀장

▲ 그림 2. 2021_2학기 비교과 활동 내역

2. 공부의 진짜 시작점 : 수강 신청

흔히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는 학기 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방학 때 진행되는 수강 신청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학기의 시간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학교생활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진로 과정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만의 수강 신청 규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2과목 이상을 연속으로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의 집중도와 시험 기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의 계획서와 강의 평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샘물 앱의 강의 계획서를 통해 교수님의 수업방식과 평가 방식 등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에브리타임 앱의 강의 평가를 통해서 앞서 수강한 다른 학우님들의 의견을 찾아보며 실질적으로 주의할 점 및 수업 내용이 계획서와 같이 진행되거나 원하는 진로의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크로스 수업**”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크로스 수업 규칙이란, 동시에 한 학기에 같이 수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각자 수업에 응용하여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위 학점을 얻기 쉬운 꿀강의를 듣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수업을 들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례로 저는 2021_2학기에 ‘콘텐츠 기획을 위한 일본의 상상력’과 ‘일본 문화와 생활’ 수업 그리고 ‘한국 문화유산과 디지털 복원’과 문화콘텐츠의 발상과 기획’ 이렇게 두 가지 크로스 수업 세트를 한 학기에 같이 수강하면서, <그림 3>과 같이 A와 A+ 성적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기획을 위한 일본의 상상력’을 통해 배운 실질적인 현대와 전통이 어우르는 다양한 일본 문화콘텐츠 기획들과 그 가치관들은 이론적으로 진행되는 ‘일본 문화와 생활 수업’에서 일본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그림 4>와 같이 관련 도서와 영상에 관한 독후감 과제를 작성할 때 참신한 접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유산과 디지털 복원’에서 배운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의 가치들과 오늘날 ICT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발상과 기획’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에서 6.25 전쟁의 참상을 세 가지 유형의 문화유산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가이드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유산과디지털복원	HAAA6022	1	1전선	2	A+
일본의문화와생활	HAAA9004	1	1전선	2	A+
문화콘텐츠의발상과기획	HAAP0001	1	1전선	3	A
콘텐츠기획을위한일본의상상력	HABH0003	2	일선	3	A+

▲ 그림 3. 2가지 크로스 수업 세트 성적

(중간+영상)

-글의 도입부분이 신선했고, 신에 대한 의미 해석도 흥미로웠음

영상의 경우에는 정리를 잘 해서 가독성이 좋았음

▲ 그림 4. 일본 문화와 생활 수업 과제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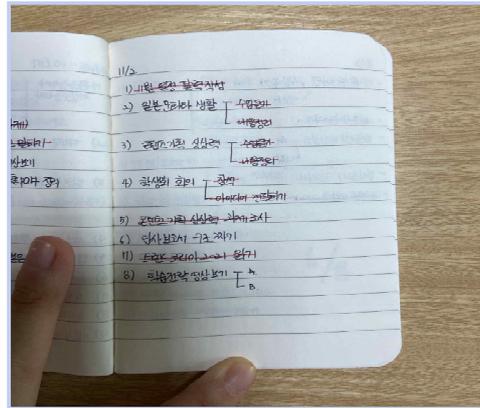
3. 시각화 1 : To-do List

학기 중 다양한 일정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그림 5>와 같이 월간 계획표는 하루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기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방식에 <그림 6>와 같이 “To-do list”를 추가하여, 일정마다 소화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로 나열함으로써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책상에 앉아서 하루의 공부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할지에 대한 고민할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각 항목을 끝낼 때마다 밑줄을 그으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의 주의점 중 하나가 시간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시부터 3시까지 ‘A’ 과목을 공부하기로 했을 때,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대충하고 넘길 수 있는 것처럼, 학습의 초점을 배움이 아닌 단순한 성과에 맞추게 되면서 진짜 공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미뤄진 계획을 보충하는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 그림 5. 월간 계획표



▲ 그림 6. To-do List

4. 시각화 2 : 모든 수업 내용을 눈으로 읽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점차 그냥 틀어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등 집중력이 낮아졌다고 느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로 단순히 수업을 “듣기”만 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네이버 클로바 노트” 앱을 사용하여, 강의 내용 전체를 텍스트화하는,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즉, 영상으로 녹화된 모든 수업 내용을 눈으로 읽는 과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앱으로 녹음된 파일을 복습할 시 사용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수업 이름_해당 주차_순번’으로 분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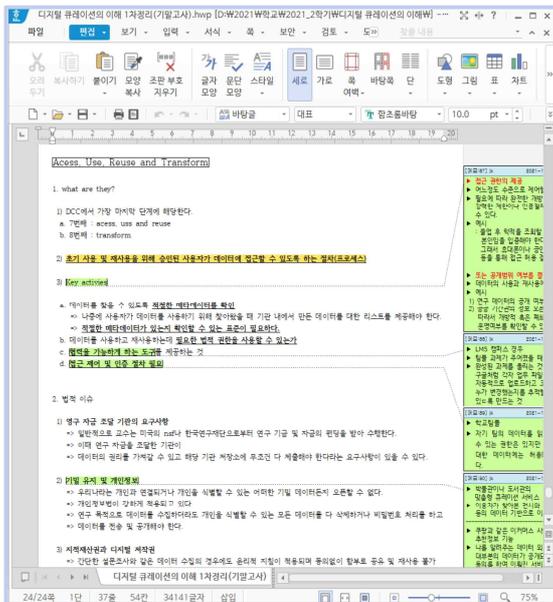
한국중세사		
이름	마지막 수정 일자	길이
한국중세사 11주차-2 지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8가지 였나요. 우리	2021.11.10	71분
한국중세사 11주차-1 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보통 예기를 하지만 항목을 한 거고 원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는 고려 국왕의 존재가 된 거고. 임 황제의 신하로서 나 그냥 신...	2021.11.10	84분
한국중세사 10주차-3 조금 양해해 주기 바란다 만큼 전에 그죠. 6차 독자 집합	2021.11.5	76분
한국중세사 10주차-2 다가라는 부분. 사료를 가져와서 공부하는 건 좀 그렇다 싶어요. 계속하죠 귀주성에서의 승전을. 또 여기 귀주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나서 귀주성...	2021.11.4	77분
한국중세사 10주차-1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음 다음 부분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2021.11.4	32분

▲ 그림 7. 클로바 녹음 파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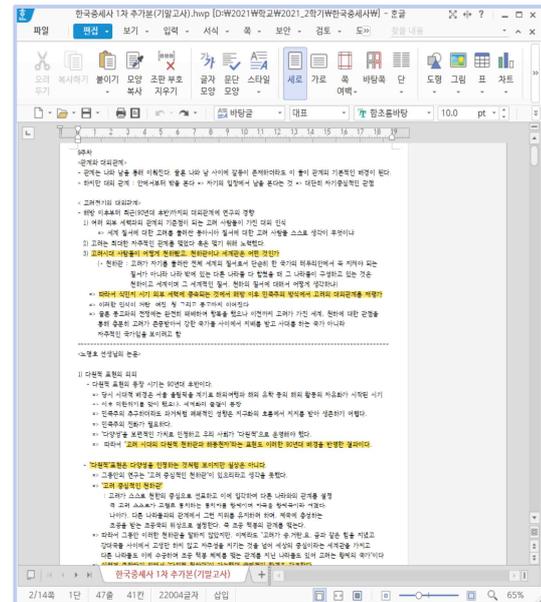
5. 시각화 3 : 글자를 통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앞서 말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복습 단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노트 필기를 한 것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임을 유의해주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화 작업은 강의 대체의 목적이 아닌 더욱 꼼꼼한 기록을 통해 글자만 보더라도 당시 교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여,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강의 내용을 정리할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버전 두 가지로 나누고, '1.-1)-a.-1' 목차번호 규칙을 적용한 “트리구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 앱을 통해 만들어진 파일의 음성 기록을 천천히 읽으면서 메모에 추가로 필기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 8>와 같이 수업 시간에 필기한 ‘1차 정리’ 한글 파일의 메모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많으면 <그림 9>와 같이 ‘강의 이름_추가본’이라는 이름이 붙인 한글 파일에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마친 후에는 완성된 1차 정리를 같이 보면서 음성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습니다. 이때 한글의 메모는 자동으로 형광펜 효과를 낼 수 있어, 1차 정리와 추가 정리를 구분하여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해당 파일을 다시 볼 때, 두 가지를 함께 읽으며 녹화된 강의 영상을 다시 보지 않아도 수업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 그림 8. 1차 정리 파일과 메모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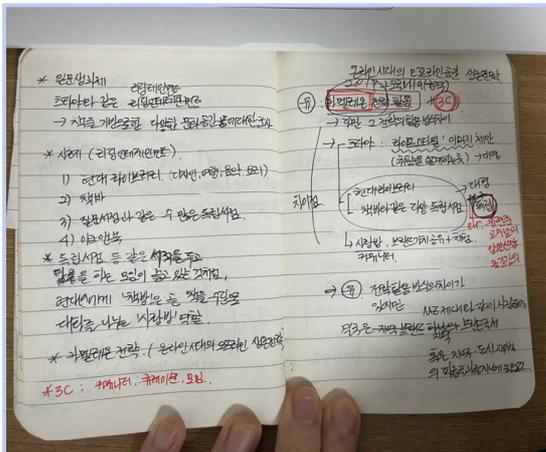


▲ 그림 9. 한국 중세서 추가본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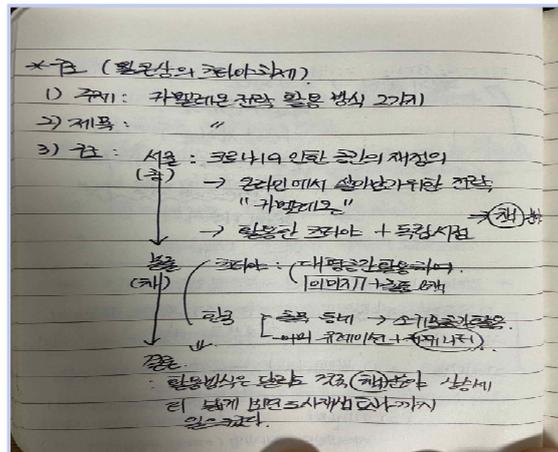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는 1차 정리를 바탕으로 2차 요약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1차 정리 본에는 수업 시간의 필기 내용과 추가 본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차 요약본은 <그림 11>과 같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며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2차 요약본을 같이 읽으며 마지막으로 음성 기록을 다시 듣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고 나면, 시각적인 정리 2번 청각적인 정리 2번 총 4번의 복습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6. 시각화 4 : 글의 뼈대를 보다.

제가 속한 역사콘텐츠 학과라는 특성에 따라 대부분 과제나 시험 그리고 각종 공모전 등이 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021_2학기에 수강하는 과목 중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되어서, 글쓰기 능력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학기를 거치며 터득한 작문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계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작문법이 크게 5가지 핵심 요소인 주제, 제목,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 점을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성에 관한 방향성을 잡아줘, 앞으로 작문을 위해 어떤 자료를 조사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10>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 숫자) 그리고 화살표라는 목차번호 규칙을 가지고 요약함으로써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자료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제를 기반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선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조사를 가지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기승전결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림 11>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노트에 정리해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초안을 수정하며,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작문의 속도를 높여서 여러 번의 퇴고가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0. 리딩테이먼트 자료조사 정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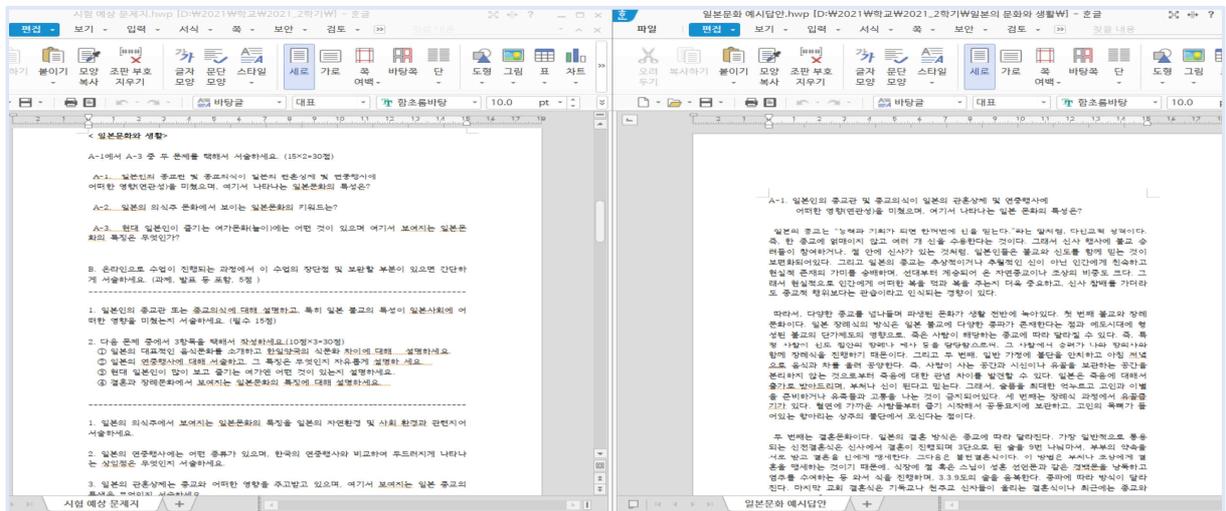


▲ 그림 11. 츠타야 과제의 뼈대

7. 답안지 : 최최최종본의 상태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3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 일주일만 앞서 보인 시각화 방법을 통해 정리된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며 특정 과목들의 기억 감각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 예상 문제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답안지를 만듭니다. 즉, <그림 12>와 같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감각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복습 및 정리하고 한 줄의 문장, 한 개의 문단, 나아가 하나의 글로 연결하며 서술형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답안지 작성에도 학기를 거쳐 터득한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샘플 고사문제지조회를 통해서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모아 출제 경향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

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추려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과 자신만의 문제 이 두 가지 유형을 함께 응용한 것까지 포함하여 최종 예상 문제지를 만듭니다. 앞선 세 가지 단계에 관해서 ‘일본 문화와 생활’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일본만의 ‘종교관이나 ‘종교의식’과 관혼상제 및 연중행사>, <의식주 키워드> 그리고 <파칭코와 같은 일본의 여가문화> 총 3가지 유형이 많이 출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저만의 생각을 더해 <자연 및 사회환경과 의식주의 연관성>, <일본 종교 중 신도 혹은 불교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 <관혼상제나 연중행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일본 종교관> 등 총 9가지 예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각화 4: 글의 뼈대를 보다’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답안지 작성을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답안지는 마지막으로 최대 3번의 퇴고를 진행하여 최최최종본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 학기 동안 배운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진정히 자신의 것으로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2021_2학기에 수강한 6개 전공 수업에서 매년 1등은 아니어도 최소 ‘A’ 학점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그림 12. 일본 문화와 생활의 예상 문제지와 예상 답안지

8. 위장된 축복 :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상상한 생활과 사뭇 달라 1년간 방향을 많이 하였지만, 돌아해보면 6년 만에 가장 긴 휴가를 보내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던 재정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공부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태도가 생겨서 2학년 때 다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학기에는 남들보다 1년 뒤쳐졌다는 느낌에 조금만 마음이라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년 동안 저의 문제점을 차분히 돌아보고, ‘자기 주도적 학습전략 워크숍’의 조언을 얻어 지금과 같은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이 조금씩 향상하여 <그림 13>와 같이 처음으로 성적 장학금(면학 A)을 받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시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2년 동안 경험을 통해 터득한 저만의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서 길을 잃은 선배님들께 자신의 페이스와 방향을 되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법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대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뿐만 아니라, 일명 높은 성적을 얻기 쉬운 꿀강의를 듣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수업을 선택하더라도 좋



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을 통해 공유된 저의 공부법이 다시 천천히 공부에 재도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선후배분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어, 과거의 시련을 위장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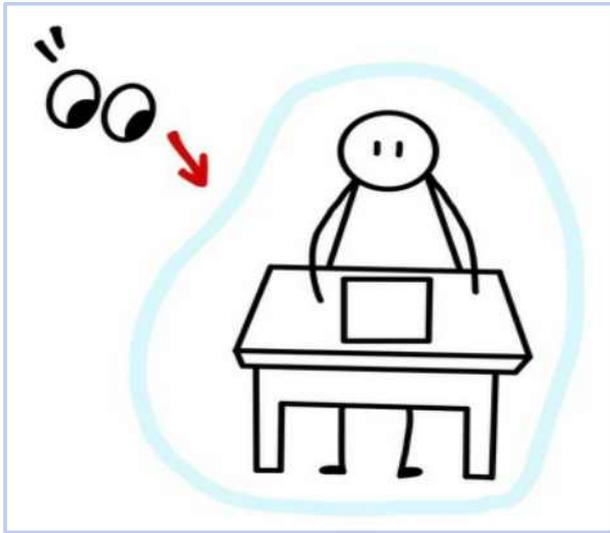
학년도/학기	학년	장학금명	금액(원)	비고
2021/2	2	면학 A	1,346,400	

▲ 그림 13. 면학 A 장학 수혜 증명서

우수상

메타 인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기

행정학부 20학번 박장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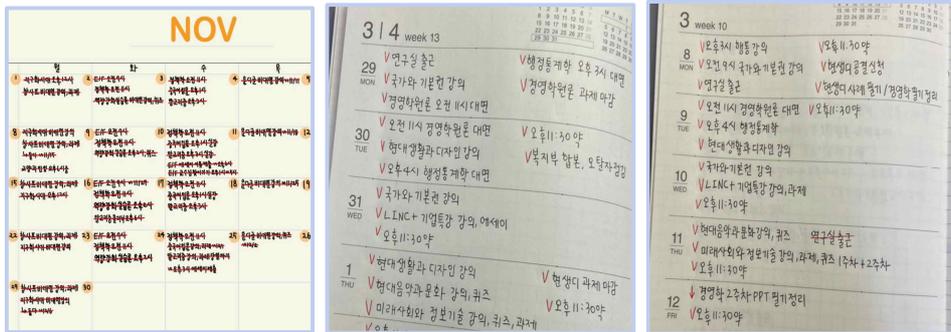
▲ 그림 1. 메타 인지

나의 학습전략은 목차의 중요성 및 단계별 색깔 표시, 부족한 부분 파악 및 보완, 최종 목표에 적합한 학습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메타 인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메타(meta)란 ‘~위에’라는 뜻으로 즉, 메타 인지는 ‘본인이 인지한 것을 인지함’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자신이 학습하는 과정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보다 멀리서 관망하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나는 메타 인지를 왼쪽 그림과 같이 이해한다.

1. 메타 인지, 나의 능력과 위치 파악하기

메타 인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메타 윤리학을 배우면서다. 처음으로 ‘메타’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느 정도를 알 수 있고 알고 있는지 인지하는 ‘메타 인지’도 접하게 되었다. 이후, 메타 인지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만의 학습전략에 적용해보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 생활에서도 본 학습전략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진정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본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틀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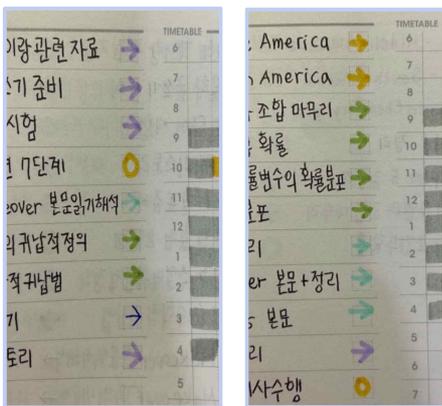
우선, 나의 능력에 대한 메타 인지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진도를 나가는 속도 등은 모두 다르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내가 하루, 일주일, 나아가 한 달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양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이전의 학습 경험들을 반영하여 내 능력에 힘겹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담스럽지 않게 세운 계획인 만큼 전부 수행하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은 실제 내가 작성했던 플래너 중 일부이다. 월별로 세워도 좋고 주간 계획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계획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 그림 2. 계획 세우기, 플래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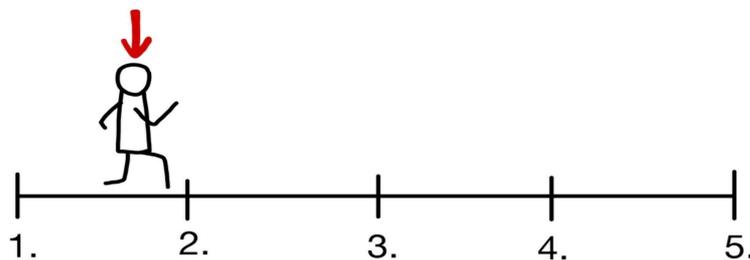
위와 같이 자신에게 적절한 정도의 학습량을 설정하였더니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부담이 덜해져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계획도 줄어들고 그만큼 성취감도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완벽히 성취한 날의 경험을 나의 능력에 반영하여 계획의 양이나 단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본인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면 성취의 기쁨과 함께 학습에 대한 내적인 동기과 욕심이 생겨 꾸준한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나의 능력에 대한 메타 인지를 하기 이전에는 계획을 미루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이전의 플래너를 보면 시간 여유 또는 실천 부족 등으로 계획을 미루는 화살표 표시가 많았다. 최근과 비교해보았을 때 실행력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 그림 3. 메타 인지하기 이전의 플래너

다음으로 능력에 대한 메타 인지에 이어서, 나의 위치에 대한 메타 인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위치는 책상 앞과 같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학습 과정 속에서 나의 위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과목을 수강할 때 현재는 6주차 수업이라는 것, 또는 과일을 배우는 중에 첫 번째로 사과를 배웠고 지금은 바나나를 두 번째로 배우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무작정 본 내용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용 이해와 흡수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 이것이 메타 인지 학습법의 핵심이다. 특히, 회독을 진행할수록 외우지 않아도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자리 잡는 진정한 공부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현재 우리의 위치를 메타 인지를 통해 이해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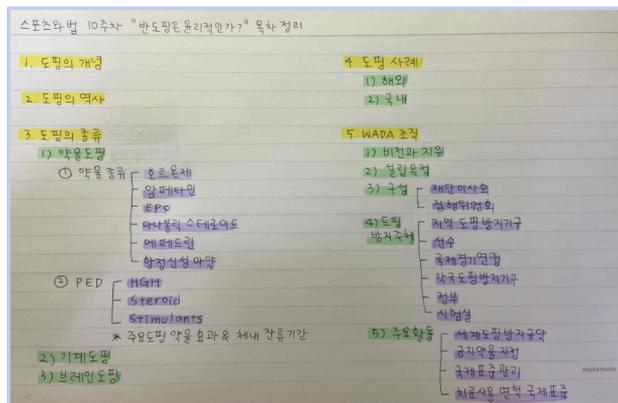


▲ 그림 4. 본 글에 대한 메타 인지

2. 목차의 중요성 / 단계별 색깔 표시

1) 목차의 중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메타 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리고 현재 학습과정 속 나의 위치에 대한 인지이다. 이 중, 나의 위치에 대한 메타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차이다. 어느 책이든 교과서든 자습서든 본 내용 이전에 목차는 항상 존재한다. 자칫하면 아무생각 없이 슬쩍 보고 넘기기 마련이지만, 목차는 학습의 전 내용을 요약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틀과 방향을 알려준다. 나는 이러한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하였다. 목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서 내용의 틀을 파악하였고 목차가 부실할 경우 보완하였다. 다음 예시는 ‘스포츠와 뱀’ 수업 PPT 자료의 목차를 직접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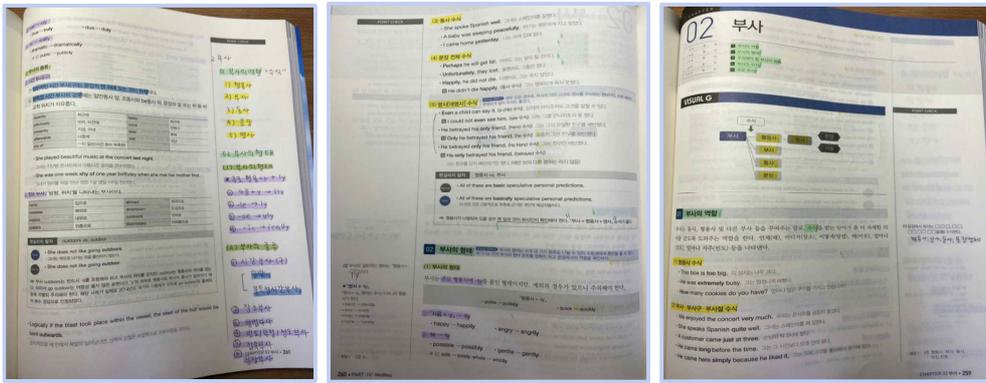
▲ 그림 5. 교양 수업 자료 목차 만들기

해당 수업 자료 PPT에는 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수업을 들을 당시에는 강의 흐름을 따라 이해가 가능하였지만 이후 혼자서 자료를 읽을 때는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순서 파악도 되지 않아 막막함을 느꼈었다. 이후, 자료를 읽기 이전에 전체적인 틀과 방향성의 필요를 느꼈고 수업 자료 내용의 대강만 파악한 후 목차를 만들었다. 이후, 위의 목차를 옆에 두고 자료를 다시 읽으니 이전과 달리 개념이 정돈된 느낌이 들었고 흐름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더해서, 목차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논리적인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이전에, 목차에서 큰 단원들의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내용의 흡수가 쉽고 빨라진다. 현재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해당 개념은 어떤 개념에 포함되거나 혹은 포함하는 것인지 등 유기적인 흐름과 관계 파악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특히, 회독을 통해 복습할수록 주요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온전히 나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 목차를 보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거나 무작정 학습 자료를 읽기 시작하는 것보다 목차를 통해 전체적인 틀을 잡고 차근차근 세부적인 내용으로 넓혀가는 학습법은 시간도 단축되어 효율적이다.

2) 단계별 색깔 표시

단계별 색깔 표시는 위의 <자료 5>에서 나타나듯이 같은 수준의 내용을 같은 색깔로 표시하여 전후 관계와 포함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목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상황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실제 학습 과정에서 단계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예시이다.



▲ 그림 6. 색깔 표시 학습 기록

위와 같이 단어의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색 표시를 하면 해당 학습자료가 시각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큼지막한 단원들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고 수준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해당 단원에 포함되는 유형은 몇 가지인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료의 남은 부분에 목차를 스스로 만들어 한 번 더 작성해두었다. 목차에도 단계별로 해당하는 색을 표시하였고 학습 본문과 색을 통일하여 전체적인 학습 구조를 익히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회독을 반복하면 목차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머리에 각인되며 나중에는 학습자료 없이도 구조와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3. 부족한 부분 파악 및 보완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본 메타 인지 학습법의 핵심은 나의 능력과 학습 과정 속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 계획을 세우는 초반 단계에서 나의 능력을 파악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후반의 복습 단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해도 유난히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기억에 남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는, 나는 완벽히 학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부족할 때도 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다시 보완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학습을 마쳤다고 생각이 들면 학습자료를 보지 않고 백지에 목차를 작성해보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였다. 또한, 큰 틀의 구조는 기억이 나지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키워드 등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다시 학습을 진행하였다. 메타 인지를 이용하여 마치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나의 지식으로 확보하였다.

4. 최종 목표에 적합한 학습

마지막으로, 내가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최종 목표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다. 즉, 내가 본 학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대학 수업과 같이 시험을 잘 봐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나 단순 능력의 향상이 목표일 수도 있다. 해당 목표에 맞게 본 학습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시험으로 진행되면서 오픈북 시험을 시행하는 경

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학습 내용을 암기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해당 상황에서는 세부적인 부분의 암기보다는 목차를 이용한 구조 파악을 더욱 반복하였다. 어떤 개념이 어느 주차 수업에 포함되는지 학습의 전체적인 흐름을 논리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고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건너뛰었다. 반면, 오픈북이 아닌 암기가 필요한 시험의 경우 구조 파악이 적절히 되었으면 필요한 부분은 외우고 회독과 부족한 부분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부분에 따라 학습법의 단계별로 시간 투자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성취감은 또 다른 학습의 동기부여가 된다. 메타 인지 학습법을 통해 첫 번째로, 계획 달성에서 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모든 학습을 끝내고 온전히 나의 지식이 되었을 때, 백지를 학습 내용으로 가득 채우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과를 얻었을 때도 성취감을 느꼈다. 학습하는 내용과 관련한 대회나 공모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나는 학습 과정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상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다.

2020	1학기	교외	대가	20601	대학혁신지원장학금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Scholarship	3	700,000
2020	2학기	교외	대가	20601	대학혁신지원장학금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Scholarship	14	700,000

▲ 그림 7. 교내 대회 수상으로 받은 장학수혜목록

5. 성과와 적용 가능성

본 학습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까지의 전공과목을 높은 성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메타 인지 학습법이 전공과목 등과 같이 학습 범위가 넓고 깊은 과목을 공부할 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시험에서도 메타 인지 학습법을 통해 유기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논리적인 답안 구성과 서술을 할 수 있었다.

HAAT0003	행정학개론	1전선	3	13.50	A+
HAUS0020	정부와제도	1전선	3	13.50	A+
HAAT0006	역량강화실습론	1전선	3	13.50	A+
HAAT0007	정책학원론	1전선	3	13.50	A+
HAAT0004	국가와기본권	1전선	3	13.50	A+
HAAT0011	행정통계학	1전선	3	13.50	A+
HAFB0002	경영학원론	1전선	3	13.50	A+
HAAE9003	경영정보시스템	1전선	3	13.50	A+
HAAT0009	기본권보호와통치구조	1전선	3	13.50	A+
HAAT0016	인적자원관리론	1전선	3	13.50	A+
HAAT0019	조직과변화관리	1전선	3	13.50	A+
HAAT0023	공공관리론	1전선	3	12.00	A

▲ 그림 8. 전공 성적 목록

결론적으로 나의 메타 인지 학습법은 본인의 학습 능력 파악하기, 학습 중에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를 기반으로 나아가 목차와 색깔을 이용한 세부적인 학습이 더해진 것이다. 학습 목표에 따라 추가적인 활동이나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본 학습법의 성취감 향상을 돕는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은 다르게 존재한다. 하지만, 본 메타 인지 학습법은 어떠한 디테일한 공부 습관과 전략, 노하우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접근도 용이한 전략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학습 전략에 본 메타 인지 학습법을 더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학습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려상

교육학과 4학년이 알려주는 '진정한' 학습 방법

교육학과 19학번 송 예 진

4학년이 되기 전, 2021학년도 3학년 2학기를 마무리한 이 시점까지 수없이 달려왔다. 교육학과에서 수 많은 전공들을 들어왔고, 2학년 때부터는 국어교육과를 복수전공하여 많은 학점들을 채워왔다. 그리고 그 결과, 평균 학점 4.42라는 성과를 받았다. 학창 시절부터 사교육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서인지 어느새 나는 나만의 학습 방법이 정립되어 있었고, 그것을 지속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과의 한 학생으로서 나의 학습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나의 학습 방법을 한 줄로 말하자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이다. 주변으로부터 “너는 매일 공부만 하는거야?”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결코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본다. 3년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알바와 대외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만큼 놀기도 많이 놀았다. 당장 2021년만 생각하더라도 주2회 2시간 방문 과외 수업을 5개나 하였다. 지역도 전부 다르기에 대학교 수업만 끝나면 바로 과외 수업을 하러 이동해야 했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외 일정으로 꽉 차 있었다. 그만큼 내가 대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었고, 나는 그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왔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끄는 학습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1) 나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일주일 속 6일의 공부 계획을 짜라.

공부는 계획을 하는 것이 반, 실천하는 것이 반이라고 본다. 그리고, 계획을 위해서는 다이어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월별로 일정을 기록함으로써 “확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다.

나는 1년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대학교 수업 과제나 시험 일정, 대외 활동 일정, 알바 등을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월별로 기록하는 이유는 한 달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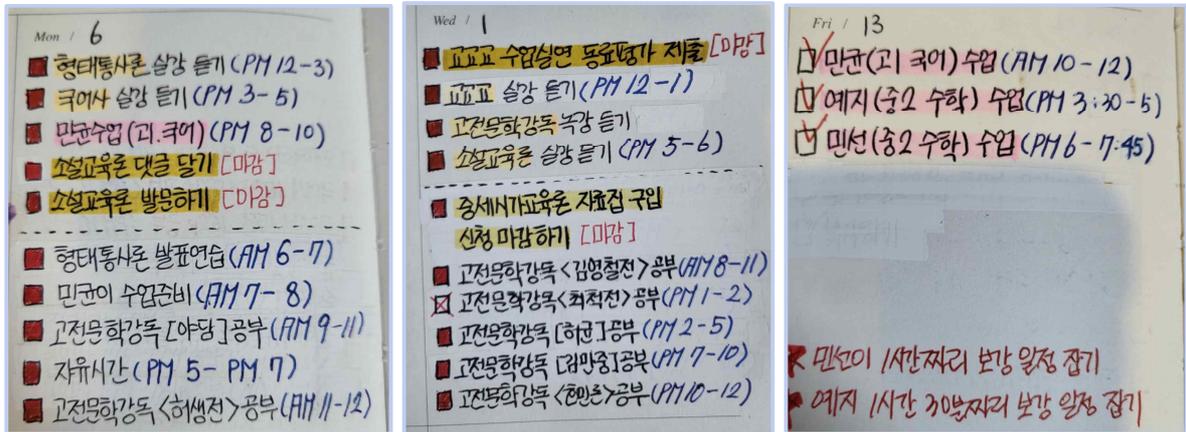
(2) “확보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일주일 속 6일의 공부를 계획한다.

아마 일주일에는 7일인데, 왜 6일의 계획을 짜는지 의문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확보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일주일 모두 공부할 계획을 세운다면, 새로운 일정이 생기거나 공부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변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7일 가운데 6일의 공부 계획을 짜서 하루를 유동적인 시간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에는, 오전 공장과 오후 공장이 있는 금요일을 “노는 하루”로 정하고, 공부 계획을 짜지 않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10시까지 매일 과외 알바가 있기 때문에 공장 시간을 주로 활용하였고, 월요일부터 목

요일까지 공강 시간과 밤 11시 ~오전 1시까지의 공부 계획을 구성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알바 시간을 제외한 시간과 일요일 전부에 대한 공부 일정도 하나하나 계획하였다. 이렇게 금요일을 제외한 일주일의 공부 계획을 짜고 난 이후, 혹여나 다른 일정 때문에 화요일 공부를 못했다면 그것을 금요일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해진 일정을 모두 수행했을 경우에는 금요일은 “노는 하루”인 것이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계획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루 정도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눈에 잘 보이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학습 일정을 계획한다.

수행한 일정과 수행하지 못한 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학습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나의 학습 계획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해야 할 학습 내용을 기록한다.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검은색 펜으로는 해야 할 일을 작성하고, 파란색 펜으로는 내용에 대한 시간 일정을 계획한다.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는 당일 중요한 전달 사항이나 공지 사항을 적어 표시한다. 이어 중요한 일정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알바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왼쪽으로는 박스를 그려 명확하게 표시한다.

2)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1) 수업 시작 전 “10분”과 수업 후 “10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10분. 굉장히 짧아보이지만 그만큼 공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 수업 시작 전 10분과 수업 후 10분은 공부를 위해 사용하면 좋다. 수업 시작 전 10분은 당일 배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읽고 예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10분은 당일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수업이 끝난 후 10분은 당일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면서 구조화하면 좋다. 이때, 구조화할 때는 “백지 공부법”을 활용하면 좋다. 백지에 오늘 배운 내용을 단어 중심의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기억나는 것을 단어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이 단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넓혀가면 된다. 예습과 복습은 수업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후에 다룰 “단권화 학습노트”에도 큰 기반이 된다.

(2) 공강 시간과 같은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알바나 다른 대외 활동 때문에 학습을 위한 “확보 가능한 시간”이 많이 없

2021학년도 2학기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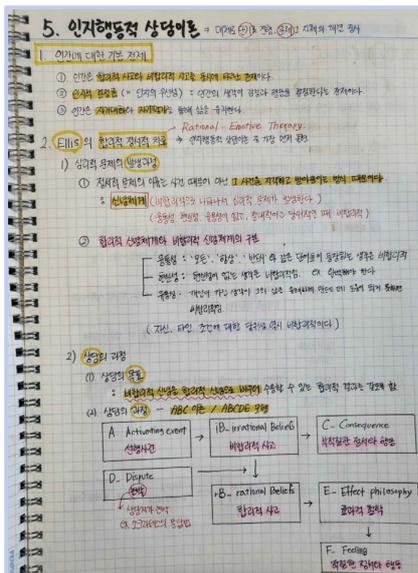


었다.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과외 알바를 하러 이동해야 했기에 오전 시간이나 공장 시간에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시간을 학습 시간으로 잡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었는데, 오전 2시~오전 8시 정도에는 잠을 잤다. 즉, 대략 오전 9시~오전 11시, 나머지 공장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였다. 나아가 시험 기간에도 이 시간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미리 하는 습관을 들였다. 가능한 당일 배운 것은 당일 정리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였으며, 평일에는 과제를 더 우선적으로, 주말에는 전공 공부를 우선으로 두었다. 또한, 시험 기간 때는 과외 이동 시간에 “단권화 학습노트”를 보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였다. “단권화 학습노트”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다루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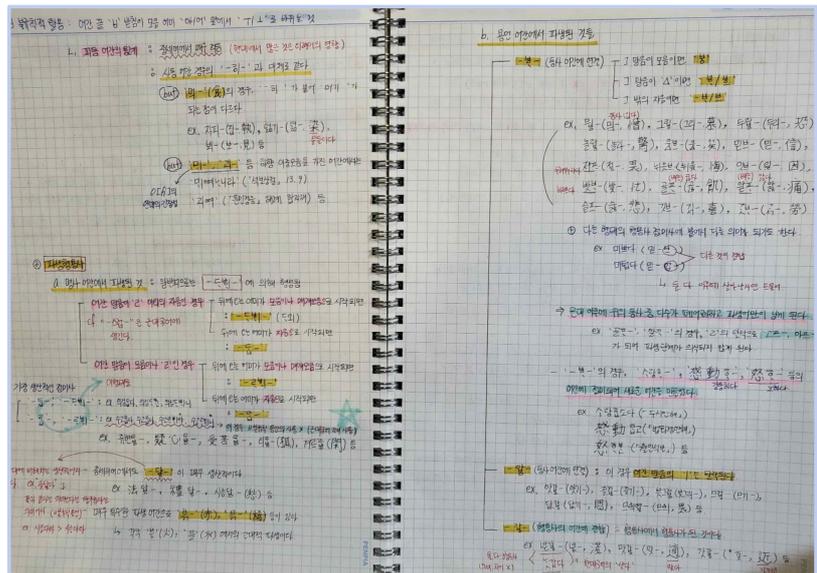
3) 나만의 “단권화 학습노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지난 <2020년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에서도 언급했던 “단권화 학습노트” 활용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단권화 학습노트의 작성 방법과 함께 활용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단권화 학습노트는 말 그대로 수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노트로 만드는 것이다. 수업에 대한 내용을 구조화하여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단권화 학습노트는 나의 경험에 기반한 것인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방대한 학습자료에 숨이 막혔을 것이다. 나 역시도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ppt는 물론 추가 자료, 발표 자료 등 너무 많은 자료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방대한 자료를 하나로 묶는다면?’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나만의 “단권화 학습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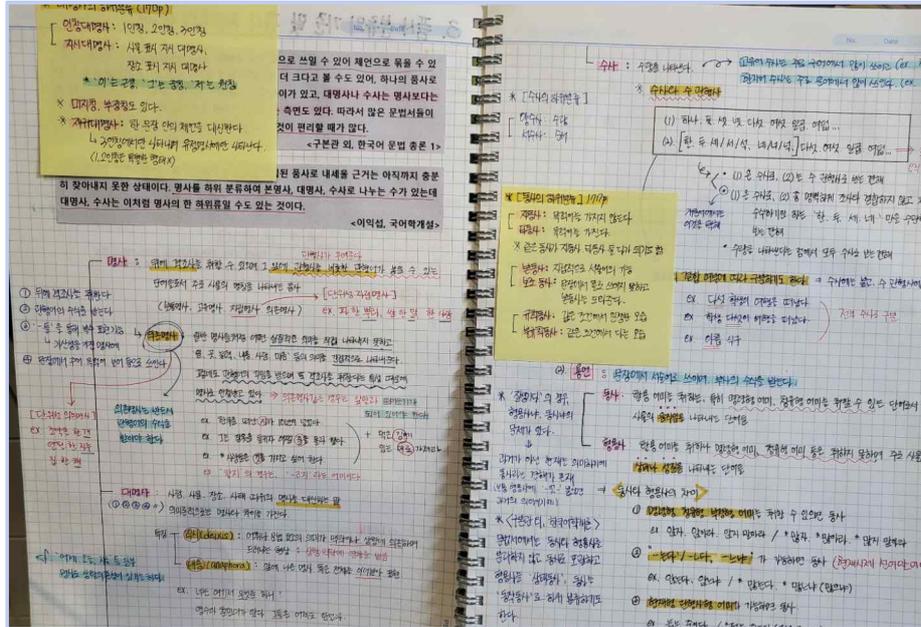
단권화 학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말하겠다. 내가 단권화 학습노트를 만들 때는, 검색 불편과 3가지의 형광펜의 사용으로 내용을 구조화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심리및상담 과목 노트



▲ 2021년 국어사 과목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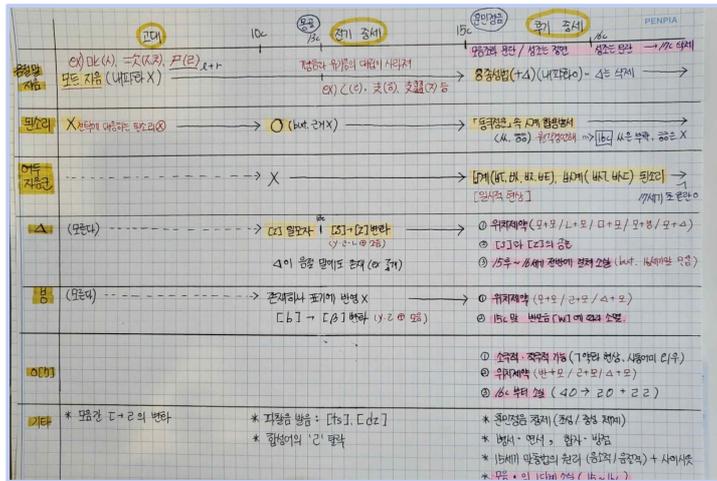


▲ 2021년 형태통사론 과목 노트

먼저, 검은색 펜은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중심을 두는 수업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파란색 펜으로는 교수님이 추가로 활용하신 자료의 내용을 기존의 내용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빨간색 펜으로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을 쓸 때 사용한다. 방대한 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 자료간의 연관성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10분” 복습 시간에 정리했던 흐름을 활용할 수 있다. 즉, “10분”복습 시간에 그렸던 마인드맵이 곧 단권화 노트의 목차가 되는 것이다. 이어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분홍색 형광펜으로는 “10분” 복습 시간에 적었던 단어들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은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온 외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물론 단권화 학습노트에 활용하는 펜의 색은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해당 펜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단권화 학습노트를 모든 전공 수업에 대하여 만든 바가 있고, 정리하는 것은 모두 주말 동안 진행하였다. “10분”복습을 통하여 수업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에 이를 주말 2일 동안 위와 같이 단권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상대적으로 단권화 학습노트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권화 학습노트 하나만 보면 되기에 생각보다 많이 편리하였다. 이러한 단권화 학습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틈틈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루에 한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보는 것을 반복하였다. 주로 머릿속에서 말해보는 연습을 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노트를 보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단권화 학습노트를 일상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기에 시험 기간 때 당일치기로 공부한 적이 거의 없으며, 시험 기간이 평소보다 더 한가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때, 한 가지 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단권화 학습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은 민트색 형광펜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권화 학습노트를 제작했기 때문에 펜과 형광펜의 색깔에 따라 많은 지식간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추가로 많은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국어사 과목 한 페이지 정리본

방대한 내용에서 핵심만을 정리해놓기도 하였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시적 흐름에 따라 국어의 변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국어가 변화하였는지를 간단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 페이지 정리본은 주로 “단권화 학습노트” 맨 앞에 붙여서 배운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위 3가지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 생활의 학습을 해왔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학습 내용을 핵심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지난 3년간 이러한 나의 학습방법을 철저하게 적용했기에 좋은 학습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전체성적내역									
수강신청학점계		137	(평점평균반영)신청학		110	평점평균	4.42	백분율	98.40
1	2021	2학기	교외	학비감면	20348	인문100년장학	National Scholarship (Humanity & Society I)		
2	2021	1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22	학과차석	Excellence in Department		
3	2021	1학기	교외	학비감면	20348	인문100년장학	National Scholarship (Humanity & Society I)		
4	2021	1학기	교외	학비감면	20348	인문100년장학	National Scholarship (Humanity & Society I)		
5	2020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16	학과수석	Top in Department		
6	2020	2학기	교외	대가	20601	대학혁신지원장학금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Scholarship		
7	2020	1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16	학과수석	Top in Department		
8	2020	1학기	교외	대가	20601	대학혁신지원장학금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Scholarship		
9	2019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22	학과차석	Excellence in Department		

이러한 학습 성과는 또 다른 성과로 이어졌다. 3학년 재학 당시 앞서 설명한 나의 학습방법과 학습전략을 담아 인문100년 장학에 지원하였고, 그 결과 인문100년 장학생에 선발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2021년 1학기에 들은 <상담심리학>과 2학기에 들은 <청소년심리및상담> 단권화 학습노트만을 가지고, 심리상담사 1급에 도전해 자격증을 받게 되었다.

장려상

새내기를 위한 암기&스토리텔링 학습법

국어교육과 21학번 황 지 은

‘대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학교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질문입니다. 첫 학기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뭘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한 학기를 보내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확신이 생겼고 다음 학기에 전부 A+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새내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학교 시험은 선택형, 서술, 논술 등의 시험과 레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 비슷하지만,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많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합니다. 레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학습법은 기본적인 암기와, 스토리텔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	학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계	평점평균	백분율
1	2021	2학기	21	22	94.50	4.50	100.00
2	2021	1학기	18	19	77.00	4.27	96.70

▲ 사진 1. 1학년 성적

1. 학습의 기초, 효율적인 암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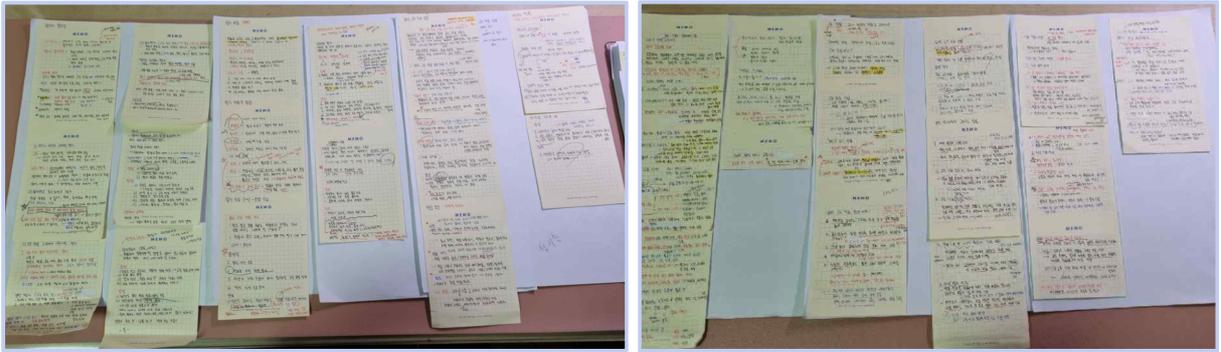
1) 왜 똑같이 외웠는데 결과가 다를까?

암기 없는 공부는 없습니다.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면, 좋은 성적을 위해선 암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적이 차이 난다는 것은 암기하는 방식이 틀렸거나 암기하는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양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장을 외울 때, 다른 사람은 10장을 외운다면 차이점은 외우는 방식입니다. 또는, 같은 양을 외웠음에도 성적이 차이 난다면 그 이유는 외우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운 양도 같고, 외운 부분도 같음에도 성적 차이가 나는 것은 외운 것을 출력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선택형이나 간단한 서술형에서는 괜찮지만 논술형 시험에서는 어떻게 글을 쓰느냐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그 부분을 완벽하게 외워서 올바르게 출력한다면 세상에 어려운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어떤 부분을 제대로 외울지 알아야 합니다.

2) 메모지 학습법

저는 실질적인 암기보다 암기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국

여교육과의 전공인 ‘국어교과교육론’ 수업을 들려고 합니다. 이 수업을 예시로 든 이유는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의 기말고사 시험범위는 정리한 내용이 A4용지 10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내용을 전부 암기했을까요? 암기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메모지’를 전부 외웠습니다.



▲ 사진 2. 메모지 정리 예시

위 사진은 제가 정리한 메모지의 일부입니다. 내용을 메모지에 정리하여, A4용지 이면지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메모지를 정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내용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옮겨 적으면 됩니다. 큰 주제와 중심 내용, 가장 중요한 것 등을 여러 색 펜을 이용해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암기할 때 어떤 부분에 중심을 뒀야 할지 감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내용을 적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흐름이 이해됩니다. 절대 일부만 옮겨 적어서는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을 메모지에 전부 옮기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도 무의식적인 암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전부 옮기고 나면 외우는 것에는 3~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험이 시작하기 4시간 전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한 번 본 것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미 한 번 파악한 흐름을 바탕으로 내용을 머릿속에 전부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때 ‘스토리텔링’을 활용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몇 분 안에 통째로 외우고,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저장해놓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외우기 위해선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암기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문장을 이해해서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을 한 번 정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야 각각의 문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외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융합형 인재는 융합을 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 + 과학기술 창조력 + 바른 인성은 ‘융합’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과 지식, 이과 지식, 인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알면 암기는 쉽습니다. 주로 인문계의 사람들은 상상하고, 과학기술 쪽은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연관성만 안다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성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단순합니다. 이 부분은 ‘창의’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창의)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융합)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스토리로 단순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문장의 이유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외워야겠다는 생각만큼 안일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외우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까먹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선 많은 양의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메모지를 쓰는 걸까요? 단순히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이라면 내용을 바로 A4용지에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메모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옮기기 쉽다. 2. 세분화된 정리가 가능하다. 3. 집중력 유지가 쉽다.

먼저, 메모지는 누구나 알듯이 옮기는 것이 쉽습니다. A4 용지도 옮기는 것은 쉽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메모지는 크기가 작아, 적을 수 있는 내용의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외워야 하는 부분을 따로 떼서 외울 수 있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끼리 모을 수 있고, 연계가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장점인가 싶겠지만, 노트 정리와 A4 정리, 메모지 정리를 전부 경험해 본 결과 메모지 만큼 편한 정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메모지를 활용하면 세분화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메모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한정되는 만큼 주제를 세분화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추가하기가 쉽습니다. 이는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력 유지가 쉽습니다. 저는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데 가장 도움 된 것이 메모지입니다.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이 큰 페이지를 언제 다 채우지? 하는 생각에 막막해지고, 하나를 망치면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길지 않은 저에게, 노트 정리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지는 내용이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정리를 통한 성취감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전부 채우면 A4용지 한 장을 채우는 것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처럼 집중력이 부족하고, 의욕이 적은 사람에게는 잦은 성취감이 중요하고, 틀린 것이 있더라도 전체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모지 학습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외운 것을 출력하는 방법

대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논술’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형 시험은 완벽한 암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술형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논술은 완벽한 암기와 더불어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창 시절 글을 써본 경험이 적다면 논술 시험은 막막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암기가 완벽하다면 큰 어려움 없이 글을 써낼 수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써야 할 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은 논술형 시험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논술형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문제에 제시합니다. 그것을 암기한 내용과 결합해서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쓰는 답지가 전부 비슷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문제를 쓸 때는 ‘정의 -> 특징 -> 장점 -> 단점’의 순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만 지킨다면 글이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정의를 B에 적용하는 방법을 적어라’라는 문제가 있다면, 앞선 체계를 활용하여 ‘A의 정의 -> A의 특징 -> B에 적용하는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A의 정의를 굳이 묻지 않아도 미리 정의, 특징을 적은 후에 B에 적용하는 방법을 적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문제에서 묻지 않는다면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본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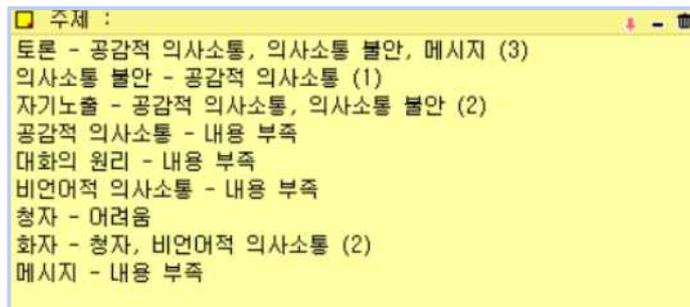
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념의 정의와 특징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필요가 없다고 문제에 제시되었을 때 적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논술형 시험에서는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야 하는 내용을 각각 떨어트려서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적는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스토리를 담은 레포트 작성하기

또 다른 대학교 시험의 특징은 ‘레포트’입니다. 레포트가 무엇인지 아직 어려운 새내기도 있을 텐데, 일종의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글은 서론 - 본론 - 결론의 형태를 띠며, 레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일정한 체계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레포트의 핵심입니다. 저는 레포트를 쓰는 것에는 자신이 있고, 지난 전공 수업 중 ‘화법교육론’에서는 기말고사 때 16장의 소논문을 써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레포트도 어떻게 쓰는 지만 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주제 선정하기

가장 먼저 주제를 선정하는 팁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로 레포트를 쓰더라도, 주제에 다른 내용을 결합하거나 활용해서 쓴다면 창의성이 돋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수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수업 시간에 떡볶이, 순대, 튀김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한 사람은 떡볶이에 대해서만 다루고 다른 사람은 떡볶이에다가 순대, 튀김까지 활용하는 내용을 쓴다면 당연히 후자의 더 글이 풍부해 보입니다. 이처럼 레포트를 쓸 때는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제를 정할 때부터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앞서 언급했던 소논문을 쓰기 위해 주제를 선정할 때 적었던 메모장으로, 가장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토론’을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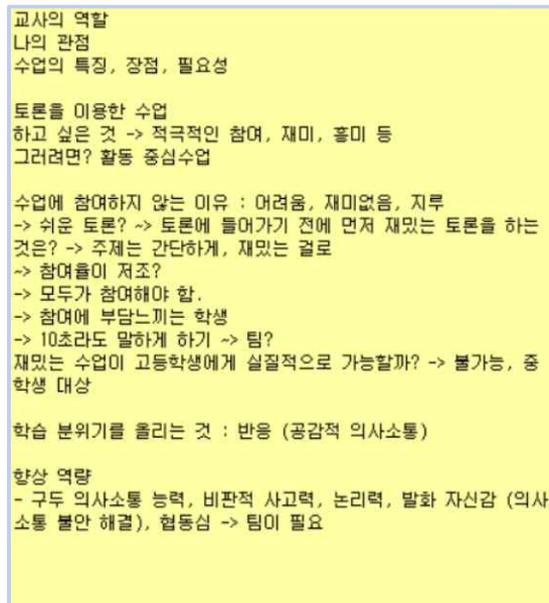


▲ 사진 3. 주제 선정 메모

2) 내용 설계하기: 가지치기

주제를 정했다면, 본격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들어갈 내용을 설계해야 합니다. 주제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쓰고 나중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세부내용을 완벽하게 정하려고 한다면 하나가 어긋났을 때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쓰고 싶은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쓰고, 나중에 그중에서 원하는 내용만을 뽑는 것이 글쓰

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때 레포트의 핵심 내용까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지지만 내용을 설계할 때는 본론의 내용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론과 결론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미리 서론에서 강조할 수 있고, 결론에서 깔끔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은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계획한 메모지 중 일부입니다. 중심으로 계획한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이고,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점차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포트를 작성할 때는 이 중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적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가치를 만들어나가고, 글을 쓸 때는 필요 없는 가치를 쳐내는 방식도 글쓰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사진 4. 내용 설계 메모

3) 스토리텔링을 기억하자

레포트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입니다. 레포트는 교수님께 제출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이 뒤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어야 좋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레포트의 결론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이란 어떤 글일까요? 바로 스토리텔링이 담긴 글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골랐는지 ->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 이 내용을 전달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이 세 흐름이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며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서론에서는 이 주제를 고른 이유와 배경, 개념의 정의 등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제의 배경을 다룰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내용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실제 뉴스 기사나 구체적인 퍼센트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좋습니다. 주제를 고른 이유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납득이 갈만한 이유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설명을 끝내면 본격적으로 본론을 쓰게 됩니다. 본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은 주제의 내용, 장점, 단점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말했듯 글을 쓸 때는 결론이 긍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단점, 문제점을 적었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의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레포트를 적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설명한 자료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내거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선 내용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얻길 바라는 효과나, 이 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거나, 이 글 이후에 어떤 것을 더 알아봐야 하는지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마무리까지 완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제를 ‘사이버 폭력의 현재 실태와 해결 방법’으로 잡았을 때 서론에서는 현재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심각도를 부각시켜야 이 주제를 왜 골랐는지 납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현재의 실태를 적고, 지금 시행되는 사이버 폭력 대처 방안을 적습니다. 이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적고 단점을 해결할 만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현재 실태를 제시했고,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으며 해결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적습니다 그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예: ~한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을 적으면 하나의 레포트가 완성됩니다. 한 주제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앞뒤 내용과 어우러지는지, 주제와 어긋나지는 않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살핀다면 쉽게 레포트를 쓸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대학교 공부는 뭐가 다르겠지? 하는 생각에 너무 오들오들 떨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공부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법을 습득한다면 어려운 공부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교의 조금 다른 점은 스토리텔링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을 써내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실력은 늘 것입니다. 답지를 쓴다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이 글이 많은 새내기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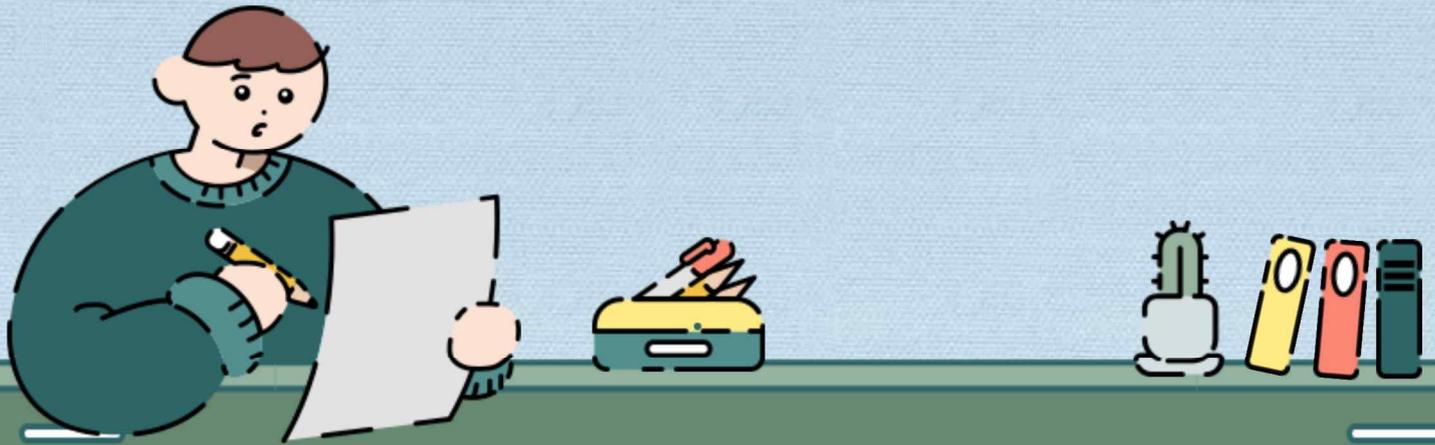
☀ 2021학년도 2학기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미래백년관 404호(R404) T. 02-2287-5427